



제 7 편 문화유산

제1장 유형문화유산 有形文化遺産

제 1 절 향교(鄕校), 서원(書院)

1. 장수향교 대성전(長水鄕校 大成殿 보물 제272호)

조선조(朝鮮朝) 창업주 태조 이성계는 각도백(各道伯)에게 명을 내려 주목군현(州牧郡縣)에 향교를 짓도록 하였다. 숭유정책(崇儒政策)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이유는 지방관현의 공과를 사정한다는 것이었다.

향교의 구조배치는 성전(聖殿)인 문묘(文廟)를 세우고, 명륜당(明倫堂)을 지어 강당(講堂)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좌우로 재(齋)를 짓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그 후 1456년(세조 2년 丙子)에 지방문묘도 대성전(大成殿)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장수향교는 1407년(태종 7년 丁亥)에 어명(御命)으로 선창리(先昌里) 당곡(堂谷)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그 터가 낮고 좁아 장마가 지면 집이 물에 잠기고 무너져 도저히 성령(聖靈)을 편히 모실수 없게 되자 1681년(숙종 7년 辛酉)에 한유일(韓有一)등 유림(儒林)이 조정에 이진장(移建狀)을 올려 윤희를 받아 옛 관아(官衙)터에 옮겨 세우니 지금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 254의1번지 관주산(官主山)아래 길지(吉地)이다. 당시현감(當時縣監) 이선연(李善淵)이 정성을 다해 청봉(淸奉)을 덜어 경리(經理)하고 1685(숙종 11년 乙丑)3월에 유림 한익삼(韓益三)을 감역(監役)으로



장수향교 대성전(長水鄕校
보물 제272호)

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13 개월이 지나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동서재(東西齋) 방무문(房廡門)등을 창건 당시의 원형(原型)대로 이진하는 공사를 모두 마치니 실로 279년만의 대역사(大役事)였다.

이 보다 앞서 1597년(宣祖 丁酉再亂)때 왜구(倭寇)가 침입하자 교복(校僕) 정경손(丁敬孫)이 오성(五聖: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위패(位牌)를 안아 수풀 속에 모신 다음 전복(殿服)을 입고 땅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수호(守護)하니 적장 천용경(川隆景)과 부장 안국사혜경(安國寺惠瓊)이 그 충절에 감복한 나머지 본 성역을 침범하지 말라(本聖域勿犯)는 신표(信標)를 써주어 후속부대의 화환(火患)을 막을 수 있었다. 안국사혜경은 적장 중 보기 드문 지식인으로 담 밖에서 이미 정공(丁公)의 찌렁찌렁 울리는 강경(講經)소리를 듣고 감탄해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1957년(光復後 丁酉) 2월 15일 국보 제420호로 지정되었다가 5년 후 1962년(壬寅)에 다시 보물 제272호로 변경 지정 되었다. 대성전의 구조를 보면 낮은 석축기단(石築基壇) 위에 세운 정면 3칸 측면 4칸의 축좌(丑坐) 건물로 웅장한 맞배지붕은 3칸 규모 에도 불구하고 장엄(莊嚴)함을 보여준다. 내부(內部)는 기둥이 없는 통간(通間)으로 처리했고 좌우측면은 하반(下半)에 석벽(石壁)을 쌓고 있다. 전면은 퇴간(退間)을 두고 가운데칸에는 세살문의 분합문(分閤門)을 달고 좌우 칸에는 같은 형식의 외짝 문 한매씩을 달았으며 나머지는 정자창(井字窓)을 달고 하반은 판벽(板壁)으로 막았다. 상부 인방(引枋) 위에는 좁은 간격으로 벽횡(壁樑)을 세우고 회벽(灰壁)을 쳤다. 기둥은 곧은 원주(圓柱)를 사용하였고 가구(架構)는 일고주칠량(一高柱七梁)집으로 기둥 위에만 공포(栱包)가 있는데 그 짜임새는 출목(出目)을 둔 주심포(柱心包)계통의 포작(包作)을 따랐으며 전면 이출목(二出目) 후면 일출목(一出目)을 구성하였다. 쇠서(檼栖)에는 복잡하게 연화문(蓮花紋)을 새겼고 상부에 봉두(鳳頭)를 만들었다. 기둥위의 공포와 공포 사이에는 두 개의 화반(花盤)이 한 칸에 둘씩 끼여 있다. 처마는 중첨(重簷)이며 좌우의 박공(膊枓) 머리에는 방풍판(防風板)을 달았다.

명륜당(明倫堂)의 구조는 정면 4칸 측면 3칸 팔작(八作)지붕, 중첨(重簷), 무고주오량가구(無高柱五梁架構), 초익공계구조로 평면구성은 좌우로 방 두 칸과 가운데 대청 두 칸의 간단한 구조이나, 전후퇴(前後退) 집인 것이 큰 특

징이다. 이 집은 좌우로 대청일 뿐 아니라 전후로도 대청이라는 것이 색다른 점이다. 뒤편 마당에 동서재(東西齋)가 있어 실질적으로 뒷면도 정면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청 앞뒤에 모두 분합문(分合門)을 달아 두개의 정면을 형성한다.

마루구조에 유의할 점이 있다. 보통은 기둥 중간에 마루를 거는 것이지만 이 집은 반대로 마루 머름 위에 기둥이 올라탄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적어도 16세기 이전의 국중에서 보기 드문 고식(古式)으로 태종 7년 당곡(堂谷)에 창건되었던 원형이 그대로 이진 되어 보존된 것을 알 수 있다. 마루머름은 육중하며 건물 모든 외벽(外壁)에 둘러쳐서 집 전체가 나무로 된 머름띠 위에 올라앉은 것 같다. 마루들보 위에 있는 파련대공이나 합각면의 추녀를 중도리 위에 건 까다로운 수법은 현재 평범한 외관(外觀)과는 달리 최상(最上)의 고급스러운 집임을 의미한다.

이 밖에 부속 건물로 양사재(養士齋)와 양로당(養老堂)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동재(敬誠齋), 서재(進德齋), 충효당(忠孝堂), 내삼문, 외삼문(扶綱門) 관리사 창고 등이 있다.

한편 예전처럼 강회(講會)는 못하지만 학술강연회(學術講演會)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요학교(日曜學校) 충효교실(忠孝教室) 한시교실(漢詩教室)을 상설운영하고 있다.



장수향교 사마재 향교 부속 건물로 유생들의 휴식공간이었음

2. 논개사당(論介祠堂 지방기념물 46 호)



장수읍(長水邑) 두산리(斗山里) 산(山)3번지 지방기념물 46호이다. 의암사(義岩祠)를 말하기 전에 축석의기 논개 생장향 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

논개사당(論介祠堂 지방기념물 46 호)

鄉賢名碑)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명비(攄名碑)는 현재 의암사 경내 남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비각이다. 비석은 1846년(조선조 헌종 12년) 장수현감 정주석에 의해 세워졌다. 이 비의 위치는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 277번지 이의종의 집터였다. 이 비석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곳의 지명을 ‘호비정거리’라 하였다. 호비정(護碑亭)이란 비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지어진 지명이라 하니 이 고장 사람들이 이 비석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곳에다 비석을 세운 뜻은 장수 장(場)이 서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충절(忠節)의 교훈을 본 받으라는 것이었다. 수명비(攄名碑)는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절(忠節)을 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본식민시대인 1939년 11월에 조선총독 남차랑(南次郎)은 제령(制令)19호를 발표하고, 이 제령(制令)에 의하여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 한민족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성, 개명 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말과 전통을 없애 우리민족의 뿌리를 사라지게 하여 일본에 자연 흡수 시키려는 완벽한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우리민족의 님과 혼이 깃들어 있는 사적유물(史蹟遺物)등의 각 소재지에 령을 내려서 파괴 또는 소각케 하는 것 이었다.

의암수명비 또한 이때 매몰되었다. 1942년 11월 하순 장수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제씨를 불러 장수군(長水郡)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2구에 거주하는 이재영, 박수옥, 강호길, 이이석, 서순영 등에게 자정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경찰서에 오라고 다그쳤다. 이날 밤 자정 경찰서에서 일본인 부장 1명과 한인 형사는 이상의 5명을 데리고 의암수명비각 앞으로 갔다. 날이 밝기 전에 비각은 헐어서 태우고, 비석은 부셔서 땅에 묻으라는 것이었다. 5명은 비각을 허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때 맑았던 하늘은 삼시간에 먹장구름으로 덮이고, 서북풍이 무섭게 몰아치며 진눈개비가 내렸다. 그러자 고등계 형사들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돌아가면서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오겠다고 하고 사라졌다. 5명은 비각은 헐어서 없애고, 비석은 땅을 깊이 파고 고이 묻었다. 그들이 나타난 때는 작업이 이미 끝난 후였다. 비록 日人들의 앞잡이였던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 가닥의 양심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어느 면에서 이 비석을 보전한 사람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조국광복과 민족의 해방이 되었으나 이 고장에서는 8월 20일 경에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광복의 기쁨을 같이

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이날 석양에 잡초가 우거진 장수리(長水里) 277 번지에서 13~14세¹⁾ 소년들이 팽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소년들을 보고 지계를 지고 오던 사람, 팽이를 들고 오던 사람들이 삼시간에 모여들었다. 이곳에 의암수명비가 묻혔다는 말이 나오자 장정들이 달려들어 작업을 하였다. 드디어 비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인근의 부인들이 바가지로 물을 떠다 비석을 씻어보니 예전의 그 의암수명비였다. 다음날(8월 21일) 장수의 청장년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연장을 준비하여 관주산(官主山)과 남산(南山)에 올라 재목을 내고, 운반하여 비각을 건립하고 비를 세웠다. 1955년에는 장수 8만군민의 여론에 따라 관·민이 힘을 합쳐 영정각(影幀閣)을 남산(南山)공원에 신축하고, 영정을 봉안함에 따라 의암비각을 장수읍 남동(南洞) 국도변으로 이전하였다.

비문(碑文)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辦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向 況人之名節 源於天性 布人耳目者乎

愧余六旬腐儒 終无成己之功 每於如斯人豐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慨

今於義妓 豎名傳後以生平 趨走不風之願謹以書記識

崇禎紀元後四丙午 秀秋上泮 知縣 鄭青錫謹識

子幼學 基永 謹書

碑有司 密城 朴吉仁

(광풍이 몰아칠 때 곳곳이 지킴은 열사도 어려운데, 한 여자가 대의(大義)를 판별하여 죽기를 쉽게 하니 얼마나 매운가!

당일을 상상하니 늙은 열기(熱氣) 해와 별처럼 밝으니 얼마나 장 할 손가!

산에 영지(靈芝) 있고 물에 예천(醴泉) 있는 것을 군자 칭송하거든 하물며 사람 명절(名節)이 천성(天性)에 근원하여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퍼진 것이라!

부끄럽다! 나는 육순부유(六旬腐儒)로 끝내 덕을 이룬 공이 없으니 매양 이 사람 같은 풍공의열(豐功義烈)에 복종 공경하여 예사 느끼는지라 지금 의기(義妓)에 이름을 세워 후에 전하여 평생 하풍(下風)에 추종하는 소원으로 삼가 이 글을 써서 기록하노라.

1) 현재 장수초등학교
34 회 졸업생

승정기원후병오(1846) 9월 선보름에 현감 정주석이 삼가 기록하고
아들 기영이 삼가 글씨를 쓰다.

비유사 밀성 박길인

의암사(義岩祠)는 대지 8,000 평에 세웠는데 영정을 봉안(奉安)하고 부통령 함태영의 친필로 편액 하였다. 충의문(忠義門), 휘광문(輝光門), 숭앙문(崇仰門)이 있고 기념관이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부속건물이 있다. 광장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좌우 산림에 군민이 채집한 토산수목이 울창하며 1994년부터 국·도·군비 50여억원을 들여 저수지 정화 등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974년에 다시 성역화사업이 대두되어 국비, 도비, 군비 등을 합하여 현 위치로 이전, 관리하고 있다.

지금 모신 영정은 윤여환화백의 제작으로 2008년 2월 4일 국가표준영정 제29호로 지정되었다.

3. 창계서원(滄溪書院 문화재자료 제36호)

창계서원(滄溪書院
문화재자료 제36호)



장수읍(長水邑) 선창리(先昌里) 566-1번지에 있다. 1695년(肅宗 乙亥) 4월에 창건하여 사간공(思簡公) 천곡(泉谷) 안성(安省)선생, 익성공(翼成公) 방촌(龐村) 황희(黃喜)선생, 열성공(烈成公) 취부(惴夫) 황수신(黃守身)선생, 뇌계(濡溪) 유희인(俞好仁)선생, 송탄(松灘) 장응두(張應斗)선생을 모셨다가 후에 사간공을 용암사(龍岩祠)로 이안(移安) 하였다. 1868년(高宗 戊辰) 11월에 훼손(毀散)되었다가 1958년(純宗後 戊戌)에 복설(復設)하고 그 후 1968년(戊申)에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康伯珍)선생을 뇌계 차위(濡溪次位)에 추향(追享)하여 오현(五賢)을 모시고 있다. 이 고장의 대표적 서원이다.

4. 압계서원(鴨溪書院 문화재자료 제35호)

산서면(山西面) 학선리(鶴仙里) 산76번지에 있다. 1789년(正祖13년 己酉)에 창건하였다. 고려조 명관으로 오도관찰사(五道觀察使)를 역임한 육려(陸麗)선생, 국헌(菊軒) 임옥산(林玉山)선생, 비암(秘岩) 박이항(朴以恒)선생을 모셨고 1798년(戊午)에 고산(孤山) 전설(全潏)선생을 추향(追享)하고 또 삼암(三岩) 박이겸(朴以謙)선생을 추향하였다. 1868년(高宗 戊辰)에 조령(朝令)으로 훼철(毀撤)되었다가 설단향사(設壇享祀)해오던 중 1958년에 지방유림이 복설(復設) 할 때 고산선생 위패는 자손의 불응(不應)으로 거두었고 그 후 문암(文岩) 육홍진(陸洪鎭)선생을 추향(追享)하였다.



5. 월강사(月岡祠 문화재자료 제31호)

장계면(長溪面) 월강리(月岡里) 562-1번지에 위치한다. 1828년(순조28년)에 지방유림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왕의 윤허(允許)로 사당을 세웠다. 고려 보문각제학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 예조판서 퇴휴재(退休齋) 송보산(宋寶山), 이조판서 손재(遜齋) 김남택(金南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 사현(四賢)을 모셨다. 1868년(高宗 5년 戊辰)에 사액서원(賜額書院) 48개를 제외한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훼철(毀撤)되었다가 1948년(戊子)에 복설(復設)되었고 1974년(甲寅)에 경재(敬齋) 백여옥(白如玉)선생, 퇴거재(退居齋) 김남중(金南重)선생, 삼락당(三樂堂) 송수산(宋壽山)선생을 추향(追享)하였다.



6. 도암사(道巖祠)

장계면(長溪面) 송천리(松川里) 서변(西邊)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1815년(純祖 15년 乙亥)에 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었다. 왕실의 후예였으나 영화를 버리고 산속에 숨어 자연과 더불어 여생을 즐겼고, 임진왜란 때는 노령의 아버지를 업고 6백리 길을 걸



어서 장수 땅에 들어온 도암(陶庵) 이정광(李綱光)선생을 위시하여 동문(同門)의 증손이 되는 영의정(領議政) 정숙공(貞肅公) 분사(分沙) 이성구(李聖求) 선생, 삼세계방(三世桂坊)으로 이름이 높은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선생 등 세분을 모셨다.

1868년 향사 훼손령(毀撤令)에 의하여 철거되었다가 1953년에 향유들의 발의로 복설되었다.

7. 용암사(龍岩祠)



천천면(天川面) 춘송리(春松里) 장항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용암사(龍岩祠)는 1818년(순조18년 戊寅)에 창설하였다. 태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한 청백리록 제1위에 자리하였던 사간공(思簡公) 천곡(泉谷) 안성(安省)선생을 위시하여 향선생 양성린(梁聖麟) 양심현(養心軒)선생과 학덕 높은 화음(華陰) 김영갑(金永甲)선생, 효자(孝子) 수우당(守愚堂) 한인기(韓仁箕)선생을 병향하여 위패를 모셨으나 1868년 서원향사 훼손령(毀撤令)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1953년에 향유(鄕儒)들과 예손들에 의하여 재건되었고 1977에는 계은(溪隱) 양석하(梁碩夏)선생을 사간공 차위에 추향(追享)하였다.

8. 화산사(華山祠 문화재자료 제34호)



계남면(溪南面) 화음리(華陰里) 136번지에 있다. 1961년(光復後 辛丑)에 성균관(成均館)과 전국 각 향교(鄕校)의 호응을 얻어 창건하였다.

성종조(成宗朝) 명신(名臣)으로 연산(燕山)의 무도(無道)함을 보고 장수(長水)로 낙향(落鄕)하여 자락정(自樂亭)을 짓고 후생교육(後生敎育)에 여생(餘生)을 바친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선생, 문간공(文簡公) 눌재(訥齋) 박상(朴祥)선생, 문간공(文簡公) 충암(沖庵) 김정(金淨)선생, 안재(安齋) 박지견(朴枝堅)선생, 문충공(文忠公) 사암(思庵) 박순(朴淳)선생, 육류정(六柳亭) 박지효(朴之孝)선생 육현(六賢)을 모시고 있다. 향사(享祀)는 매년 음력 9월 17일에 봉행(奉行)한다.

9. 사동사(社洞祠)

산서면(山西面) 사상리(社上里)에 있다. 1847년 조선조(憲宗 8년 丁未)에 창건(創建)하였으며 배향된 선현은 동창(東窓) 김준손(金駿孫), 매헌(梅軒) 김기손(金驥孫), 문민공(文愍公) 탁영(탁영) 김일손(金駟孫),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도연정(道淵亭) 김치삼(金致三), 만회당(晩梅堂) 김정택(金挺澤)선생 등 6현(賢)을 봉안하였다. 조선조 고종(高宗) 무진(戊辰) 나라의 훼절령(毀撤令)에 의하여 훼절(毀撤)되었으나 순종(純宗)후 정유(丁酉)에 복설하고, 절효공(節孝公) 김극일(金克一)을 상위(上位)에 추향(追享)하였다.



10. 문양공 양성지 별묘(文襄公梁誠之別廟)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구창(九倉)에 있는 문양공(文襄公)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의 사당이다. 일찍이 남원 월곡사(月谷祠)에 모셨는데 서원 훼절(毀撤)후에 자손이 이곳에 별묘를 세워 향사(享祀)하고 있다. 공은 1415년(太宗 乙未)에 출생하여 1441년(世宗 辛酉)에 문과에 올라 사관(史官)으로 학자(學者)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남원군(南原君)을 봉(封)하였다.



11. 밀양손씨 세덕사(密陽孫氏 世德祠)

계북면(溪北面) 농소리(農所里)에 있다. 1963년(純宗後 癸卯)에 세우고 문평공(文平公) 손순(孫順), 광리군(廣理君) 손극훈(孫克訓), 밀성군(密城君) 손빈(孫斌), 상서공(尙書公) 손승명(孫承明), 현감공(縣監公) 손흥조(孫興祚), 선무랑공(宣武郎公) 손빈(孫賓) 여섯 선조를 모시고 있다.



12. 오산사(五山祠)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에 있다. 2004년(甲申)에 창건하여 청련재(靑蓮齋) 권진규(權晉奎) 선생을 모셨다. 일찍이 문하생(門下生)의 모임인 용

친계(隆親契)가 결성되어 주축이 되었다.

13. 건재사(健齋祠)



계북면(溪北面) 양악리(陽岳里)가 출생지인 건재(健齋) 정인승(鄭寅承)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회장 朴龍德)를 구성, 국·도·군비 15억 원을 들여 생가지(生家址)에 창건하고 매년 한글날 추모제(追慕祭)를 올리고 있다.

제2절 영당(影堂)

1. 금남군정충신영정각(錦南君鄭忠信諱貞閣 문화재자료 제33호)



문화재자료 33호인 금남군영정각은 장계면(長溪面) 금곡리(金谷里) 413-4번지에 있다.

정금남은 나주정씨로 광주 통인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재질이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이항복 대감에게 중용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장계(狀啓)를 오려 종이가방을 만드는 기지를 발휘하여 일본군(軍中)에 들어가 기식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일본군의 허실을 탐지하여 공을 세웠다. 또한 이괄의 난 때 대공을 세웠으며 충무공이란 시호를 득한 절륜한 무장이었다. 이곳에 영정각이 있는 까닭은 약 120년 전에 정충신 예손들이 장수로 이주하면서 충무공 영정을 모시고 와서 각을 세우고 봉안하였다고 전한다.

이 각의 기와는 원래 너새란 석재(石材)였으나 1868년에 중수하면서 기와로 바꾸었다.

2. 유계영당(幽溪影堂)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樓里) 대산동(大山洞)에 있다. 유계(幽溪) 정재흥(丁載興)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곳이다.

3. 화산영당(華山影堂)



하기 위하여 세웠다.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에 있는 극복재(克復齋) 권집(權集)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그의 종가(宗家)가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영정이 원상대로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유림(儒林)이 공의 덕과 영험을 추모

제 3 절 각묘(閣廟)

1. 영락 12년 왕지(永樂12年王旨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에 위치하고 있다.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선생은 조선조(朝鮮朝) 태조(太祖)때 청백리(淸白吏) 선발에서 제1호(第1號)로 선발되었다. 또한 선생에게 태종대왕은 어필(御筆)을 내리셨다. 어필교지(御筆教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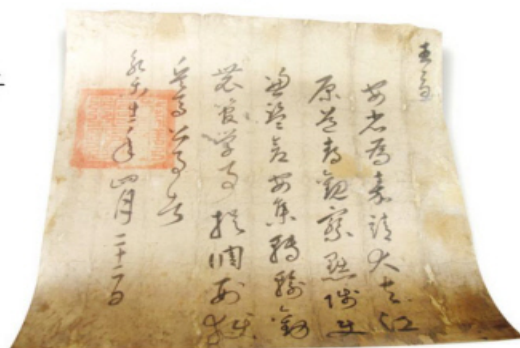
안성은 위 가정대부 강원도도관찰 출척사 겸 감령 안집전론 권농 관학제조 형옥병마 공사자

(安省은 爲 嘉靖大夫 江原道都觀察 黜陟使 兼 監領 安集轉輸 勸農 管學提調 刑獄 兵馬 公事者)

영락십이년 사월 이십이일(永樂十二年 四月 二十二日)

태종십사년 사월 이십이일 (太宗 十四年 四月 二十二日)

이 교지(教旨)는 당시 사법행정(司法行政)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특히 출척사라는 어사(御使)와 다름없는 특권을 부여하는 최대의 은전(恩典)을



영락12년 왕지 (永樂12年王旨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어필각 (왕지를 보관하는 각)

내렸던 것이다. 1752년(英祖 27년 壬申)에 후손(後孫)들이 각(閣)을 건립하고 조상의 위업을 빛나게 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선생이 쓴 기문(紀文)과 행장이 있으며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선생의 찬기도 보전되고 있다.

2. 어서각(御書閣 문화재자료 제32호)



1763년(英祖 39년 癸卯) 동짓(冬至)날 영조대왕(英祖大王)은 입직(入職)한 조신(朝臣)들에게 백죽(白粥)을 내리고 굴도 하사하면서 친히 정청에 납시어 신하들과 즐기면서 추담(秋潭) 장현경(張顯慶) 선생에게 사언(四言) 8귀를 친필로 하사하였다.

七旬頒柑 癸未冬臘 報漏將半 君臣同食 粵昔東漢 蕪蕒豆粥 于今一堂 可見泰日.

(칠순에 굴을 나눠주니 재미년 설달이라. 보루의 종이 반을 알릴 때 군신이 같이 먹노라. 옛적 동한에 콩죽이 성하였는데 지금 한 집에서 가히 태평 성대를 보겠도다.)

추담 선생은 이 어서를 가지고 낙향하였는데 번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에 이 어서각을 세우고, 영조대왕 왕은에 보답하려 하였으며 오늘에도 예손들의 교육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부조묘(不祧廟)

송록대부(崇祿大夫) 판돈영부사(判敦寧府事) 여양부원군(礪良府院君) 여산인(礪山人) 호(號) 죽헌(竹軒)이라 하며 단종대왕(端宗大王)의 국구(國舅)이다. 즉 단종(端宗)의 장인(丈人)이며 명(名)은 송현수(宋玼壽)이다. 세조(世祖)의 동성(同姓)혁명으로 인하여 단종(端



宗)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그 연유(緣由)로 삭탈관직(削脫官職)되었으나, 1698년(肅宗 24년 戊寅)에 단종(端宗)의 복위와 동시에 공(公)의 관직도 회복되었다. 시호(諡號)는 정민공(貞愍公)으로 내리고 부조전(不祧典)을 허(許)하여 후손이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에 부조묘(不祧廟)를 건립하였다. 이곳에 묘당을 모신 연유는 자손들이 이곳으로 이거했기 때문이다. 부조묘가 있는 이 마을은 부조묘와 더불어 묘당이 5개가 있어 지명(地名)을 오성리(五聖里)라고 명명하였다.

4. 부조묘(不祧廟)



최공(崔公) 윤덕(潤德)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祠堂)이다. 세종조(世宗朝)에 좌상(左相)으로 권세를 누렸으며, 1419년(世宗元年 己亥) 대마도(對馬島) 정벌때 도절제사(都節制使)로 임명되어 큰 공을 세웠다. 또한 1433년(世宗 15년 癸丑) 만주(滿洲)에서 득세한 이만주(李滿住)가 압록강(鴨綠江)을 넘어 자주 변경을 침입하자 조정에서는 도절제사(都節制使)에는 최윤덕(崔潤德)을, 부절제사(副節制使)에는 이순몽(李順蒙)을 임명하여 야인의 소굴을 격파하였다. 공(公)의 관향(貫鄉)은 통천(通川), 자(字)는 백수(伯修) 또는 여화(如和), 호(號)는 임곡(霖谷)이며 호연정(浩然亭)을 건립하고 다시 자호(自號)하여 호연정(浩然亭)이라 하였다.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조정에 서 정열공(貞烈公)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下賜)하고 세종묘(世宗廟)에 배향하였으며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명하여 고향인 경상도(慶尙道) 창원부(昌原府)에 묘당을 건립하였다.

공(公)의 증손인 현감 최윤(崔倫)이 산서면(山西面) 건지산(乾芝山)에 유배되어 이곳에 정착하면서 묘당을 이전하고 위패를 모셨으며 강당(講堂)으로 경사재(敬思齋)를 세웠다.

제4절 정여(旌閭)

2) 본권8면5장3절부분



1. 조성순 처(曹聖淳妻) 열녀(烈女)

김해김씨(金海金氏) 정여(旌閭)²⁾

장수읍(長水邑) 노곡리(芦谷里)

3) 본권8면5장2절부분



2. 효자(孝子) 모순(牟恂) 정여(旌閭)³⁾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진전(眞田)

4) 본권8면3장3절부분
본권8면5장2절부분



3. 효자(孝子) 임옥산(林玉山) 정여(旌閭)⁴⁾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하오(下五)

5) 본권8면5장3절부분



4. 절렬 양정씨지 려(節烈 兩丁氏之 閭)⁵⁾

산서면(山西面) 하월리(下月里)

429 번지(문화재자료 제171호)

6) 본권8면5장3절부분



5. 권희언 처(權希彦妻) 열녀(烈女)

남평문씨(南平文氏) 정여(旌閭)⁶⁾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6. 박이항 처(朴以恒妻) 열부(烈婦)
원주원씨(原州元氏) 정여(旌閭)⁷⁾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7) 본권8 편5 장3 절부분

7. 김익 처(金鉞妻) 열녀(烈女)
전주이씨(全州李氏) 정여(旌閭)⁸⁾
산서면(山西面) 이룡리(二龍里)



8) 본권8 편5 장3 절부분

8. 증 통훈대부(贈通訓大夫)
사복사정(司僕寺正)
김연장 처(金鍊章妻) 열녀(烈女) 숙인(淑人)
진주소씨(晉州蘇氏) 정여(旌閭)⁹⁾
산서면(山西面) 하월리(下月里)



9) 본권8 편5 장3 절부분

9. 효자(孝子) 육호진(陸好鎭) 정여(旌閭)¹⁰⁾
산서면(山西面) 마하리(馬下里) 원흥(元興)



10) 본권8 편5 장2 절부분

10. 효자(孝子) 윤행혁(尹行爌) 정여(旌閭)
산서면(山西面) 신덕리(新德里)



11) 본권8편5장2절부분

12) 본권8 편5장2절부분



13) 본권8편5장2절부분



14) 본권8편5장2절부분

15) 본권8편5장2절부분
36. 정종목



16) 본권8편5장2절부분
17. 육봉천

11. 효자(孝子) 양재철(梁在澈) 정여(旌閭)¹¹⁾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12. 효자(孝子) 윤필은(尹弼殷) 정여(旌閭)¹²⁾
산서면(山西面) 신덕리(新德里)

13. 효자(孝子) 장기하(張基河) 정여(旌閭)¹³⁾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14. 효자(孝子) 장사명(張士明) 정여(旌閭)¹⁴⁾
번암면(蟠岩面) 동화리(桐花里)

15. 효자(孝子) 정종목(鄭鍾穆) 정여(旌閭)¹⁵⁾
번암면(蟠岩面) 국포리(菊圃里)

16. 효자(孝子) 육봉천(陸奉天) 정여(旌閭)¹⁶⁾
장계면(長溪面) 무농리(務農里)

17. 효자(孝子) 육재중(陸在中) 정여(旌閭)¹⁷⁾
장계면(長溪面) 무농리(務農里)

17) 본권8편5장2절부분

18. 효자(孝子) 박귀천(朴貴千) 정여(旌閭)¹⁸⁾
천천면(天川面) 월곡리(月谷里) 박곡(朴谷)



18) 본권8편5장2절부분

19. 효자(孝子) 김흠(金肱) 정여(旌閭)¹⁹⁾
천천면(天川面) 삼고리(三顧里)



19) 본권8편5장2절부분

20. 효자(孝子) 장영손(張永孫) 정여(旌閭)²⁰⁾
천천면(天川面) 월곡리(月谷里)

20) 본권8편5장2절부분

21. 서문배 처(西門培妻) 열부(烈婦) 서산정씨
(瑞山鄭氏) 정여(旌閭)²¹⁾
계남면(溪南面) 침곡리(砦谷里) 사곡(梭谷)



21) 본권8편5장3절부분

22. 효자(孝子) 이동화(李同華) 정여(旌閭)²²⁾
계남면(溪南面) 가곡리(佳谷里)



22) 본권8편5장2절부분

23) 본권8 편5 장2 절부분

24) 본권8 편5 장2 절부분

25) 상세한 내용은 장수항

23. 효자(孝子) 양근(梁根) 정여(旌閭)²³⁾

계남면(溪南面) 화음리(華陰里) 수열평(樹烈坪)

24. 효자(孝子) 이정근(李正根) 정여(旌閭)²⁴⁾

계남면(溪南面) 가곡리(佳谷里)

25. 효자(孝子) 김선후(金善厚) 정여(旌閭)²⁵⁾

계북면(溪北面) 어전리(於田里)

제5절 서당(書堂)

1. 흥학당(興學堂 문화재자료 제147호)



계남면(溪南面) 화양리(華陽里) 97-2번지 유천(柳川)에 있다. 충주박씨(忠州朴氏), 연안송씨(延安宋氏), 남원양씨(南原梁氏), 보성오씨(寶城吳氏), 문화류씨(文化柳氏), 전주최씨(全州崔氏), 전주박씨(全州朴氏), 동래정씨(東萊鄭氏), 금계한씨(錦溪韓氏), 안음서문씨(安陰西門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열한성씨가 모여 1717년(숙종43년 丁酉)에 세웠다. 생원(生員) 양심헌(養心軒) 양성린(梁聖麟)의 기문(記文)이 있고, 그 후 무너진 것을 양탁원(梁倬源)의 발의(發議)로 중건(重建)하였다. 계남향약소(溪南鄉約所)와 계남면 사무소로 쓰인 적이 있고, 흥학(興學)의 일을 받아 그 곁에 계남중학교를 설립하였다.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당으로 인정되어 문화재자료에 등록되었다. 문 앞에 세운 원안비(原案碑) 두전(頭篆)은 충주(忠州) 박광근(朴光根)이 썼다.

2. 안락재(安樂齋)



계남면(溪南面) 화산리(花山里) 재궁동(齋宮洞)에 있는 현 화산사(華山祠) 강당(講堂)이 안락재(安樂齋)이다. 조선 중종조(中宗朝) 습독(習讀) 박지견(朴枝堅)이 은퇴하여 본 서당을 짓고 안빈락도(安貧樂道)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박지견이 울곡(栗谷), 우계(牛溪), 중봉(重峯)사이에서 놀았고, 간간히 놀재(訥齋), 사암

(思菴), 종방(從傍)의 방문(訪問)으로 인하여 더욱 호남의 명소가 되었다.

3. 지금당(知今堂)

산서면(山西面) 계월리(桂月里) 현 계월초등학교 후원에 있다. 1569년(선조2년 己巳)에 만현(晩軒) 정염(丁焰)이 문인(門人) 활계(活溪) 이대주(李大主)와 협의하여 창건하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문과(文科) 7인과 생원진사(生員進士) 30여인은 대단하다 하겠다. 창원정씨(昌原丁氏), 경주이씨(慶州李氏), 부안김씨(扶安金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삭녕최씨(朔寧崔氏) 5성씨 문중(門中)에서 운영하고 있다.



4. 백운재(白雲齋)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91번지에 있다. 한동네에 거주한 능성구씨(綾城具氏)와 남원양씨(南原梁氏)가 함께 세우고, 산 이름을 따서 '백운재'라 하니 산 곁고 물 좋아 독서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생원진사(生員進士) 몇 명이 배출되었다.



5. 성은정사(城隱精舍)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樓里) 성산(城山) 위에 있다. 영모재(永慕齋) 정석후(丁錫後)가 우암(尤庵)과 동춘(同春) 문하(門下)에서 배우고 만년에 강학소(講學所)로 지은 서당이다.



6. 근수루(近水樓)

계남면(溪南面) 고박동(古朴洞)에 창건되었다가 궁양리(弓陽里)로 이건(移建)하였다. 지금의 장안전통문화예술촌 자리로 폐교된 장안초등학교 중앙의 갈마음수(渴馬飲水)형에 口자 기와집이었는데 학교를 세울 때 한칸으로 축소 이건하였다.

사인(士人) 오서규(吳瑞奎), 양하조(梁賀朝), 박재경(朴在綱)이 동지(同志) 몇 사람과 함께 강학습례(講學習禮)하던 곳이다. 양학원(梁學源)의 근수루명(近水樓銘)이 명문(名文)이고 사적비문(事蹟碑文)은 양중호(梁鍾浩)가 지었다.





7. 화계재(華溪齋)

계남면(溪南面) 명동(明洞)에 있다. 범화산 아래 맑은 시내가 흐르는 위에 존화(尊華)의 뜻과 탁영(濯纓)의 취미를 체득한 화계(華溪) 류엽(柳燁)이 서당으로 세워 자손의 강습소를 삼았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기문을 지었다.



8. 지우재(止隅齋)

장수읍(長水邑) 송천리(松泉里)에 있는 안동인(安東人) 간송(澗松) 권정만(權正萬)의 강학소(講學所)이다. 야옹(野翁) 권윤수(權潤壽)가 기문을 썼다.



9. 운동서당(雲洞書堂)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175번지에 있다. 권창옥(權昌玉)이 그의 선고(先考) 청련재(靑蓮齋) 권진규옹(權晉奎翁)을 사모하기 위하여 융친계(隆親契)와 협의하여 건축하였으며 지금도 동하기 방학이면 서생(書生)이 각처에서 몰려오고 있다.



10. 화계정사(華溪精舍)

계남면(溪南面) 요전리(堯田里)에 있는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의 강학소(講學所)이다. 사방에서 학생이 모여들어 동네가 커졌고 또 일꾼, 아녀자까지 교도하여 유풍(儒風)으로 바뀌게 하니 지금도 글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염재(念齋) 김균(金均), 옥산(玉山) 박원철(朴源轍)이 기문을 짓고 백아(白牙) 김창현(金章顯)이 액자를 썼다.

11. 육영당(育英堂)



계남면(溪南面) 중방리(中方里)에 있다. 1922년(순종 후 壬戌)에 양택원(梁澤源)외 34인이 계를 만들어 지은 서당으로 많은 영재(英才)를 길러내었다.

12. 육영당(育英堂)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에 있다. 1987년(光復後 丁卯)에 산서면 경로당의 주관으로 도비, 군비, 경로당 시상금과 면내 각 기관 및 유지의 협조로 건축되어 매년 동하기 방학에 충효교실(忠孝教室)을 운영해온 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결성하니 회원이 80여명이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양석호(梁錫鎬)강사가 10여년간 가르쳤고, 현재 권승근(權丞根)강사가 수고하고 있다. 교재는 예의교본(禮義敎本), 사자소학(四字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등이다.



13. 모훈재(慕勛齋)

1670년(현종 庚戌) 봄에 강암(康庵) 박종빈(朴宗彬)이 처음 계남면(溪南面) 요전리(堯田里)에 터를 잡아 동네 이름을 짓고 서당을 세워 후학을 길러내었다.

14. 호덕재(好德齋)

덕은(德隱) 김시현(金時顯), 남강(南岡) 김시형(金時瀾)이 계남면(溪南面) 호덕리 송정산(松亭山)에 창건하여 자손 교육장소로 삼았다.

15. 낙영당(樂英堂)

장계면(長溪面) 월강리(月岡里)에 있다. 사인(士人) 신용성(愼鏞晟), 소강(小岡) 최기호(崔基皓), 월강(月岡) 김숙권(金淑權), 청강(淸岡) 이용기(李容沂)등이 여러 벼과 더불어 창건하여 많은 영재를 가르쳤다.



16. 삼역재(三亦齋)

모재(侮齋) 서기한(徐琪漢)이 선비들과 더불어 계남면(溪南面) 평지(平地)에 세워 논어 학이장(論語學而章)을 중심으로 공자(孔子)의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17. 궁양재(弓陽齋)

보성오씨(寶城吳氏), 광주이씨(廣州李氏), 금계한씨(錦溪韓氏), 전주최씨(全州崔氏), 부안김씨(扶安金氏), 남원양씨(南原梁氏), 경주이씨(慶州李氏), 밀양손씨(密陽孫氏), 성산이씨(星山李氏), 밀양박씨(密陽朴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이천서씨(利川徐氏), 문화류씨(文化柳氏), 청주한씨(淸州韓氏), 거창유씨(居昌劉氏), 제공(諸公)이 계남면(溪南面) 양지리(陽地里)에 세운 서당이다.

18. 경독사숙(耕讀私塾)

1930년(순종후 경오)에 계남면(溪南面) 요전리(堯田里)에 세운 서당이다.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의 주간(主幹)으로 동민과 인근 유지가 합심 창건하여 정정(井井)한 조리(條理)와 엄격(嚴格)한 규율(規律)밑에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실효(實效)를 거두어 오고 있다.

19. 연계정사(蓮溪精舍)

연계(蓮溪) 김태동(金泰東)이 계북면(溪北面) 연동(蓮洞)에 세워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20. 연묵재(淵默齋)

장계면(長溪面) 신기리(新基里)에 있는 안분재(安分齋), 김태형(金泰亨), 일간(一間) 하대진(河埜鎭), 송포(松圃) 김태연(金泰燕)이 계원 여려분과 더불어 세운 서당이다. 그 후 무너진 것을 자질(子姪) 김중권(金仲權), 하영희(河永熙), 김병모(金柄模)가 협력 중건하여 충준(聰俊)을 교육하니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났다.

제 6 절 향약(鄉約)

향약(鄉約)은 지방교화를 목적으로 한 자치규약이다. 중국 북송(北宋) 협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의 여대군(呂大鈞) 대림(大臨)형제의 여씨향약에서 기원(起源)하였고, 주희(朱熹)가 가감 증보하여 대전(大全)에 실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398년(太祖7년)에 그의 향리(鄉里)인 풍패향(豐沛鄉)을 위하여 향가조목(鄉可條目) 41조를 제정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으로 하여금 향리에 반포 실시하게 한 것이 시초라 하겠다. 또한 각 지방에서도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향풍(鄉風)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향약소라는 자치단체가 자체 내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그를 대신할 수 있는 향약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조령(朝令)이 반포되기 이전에 경상도 유생(儒生) 김인범(金仁範)이 향약시행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리하여 중종(中宗)때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朝)를 위시한 신진사류의 유향소(留鄉所)를 대신하는 향약실시 진언(進言)을 받아들여 각 지방 관장(官長)에게 명하여 여씨향약을 인쇄 반포하고 향약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풍습(風習)과 민정(民情)에 알맞은 향약제정의 필요를 느껴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1556년(明宗11년)에 여씨향약을 참작하여 예안향약(禮安鄉約)을 만들었는데 후에 영조(英祖)때의 유학자 최흥원(崔興遠)에 의해 증보되어 향리인 달성군동약(達城郡洞約)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1571년(宣祖6년)에 울곡(栗谷) 이이(李珥)는 여씨향약과 예안향약을 기초로 서원향약(西原鄉約)을 만들어 청주(淸州)지방에 시행하였고 선조10년에는 해주향약(海州鄉約)과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鄉約束)을 제정시행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향약을 참고로 하고 각 지방의 실제사정에 맞도록 가감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이(李珥)의 향약은 숙종, 경종, 영조, 정조 때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서 대부분 그에 의거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계남향약은 현 국중 최장(最長)의 향약이다. 전신(前身)인 양풍회(良風會)가 조선후기의 쇠퇴(衰退)를 떨치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乙卯)에 조직되어 이어온 것으로 근1세기의 역사를 가졌다. 이어 장계, 계북, 장수, 산서 향약이 실시되어 향인교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군지에서는 각 읍면 향약의 연혁과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90회 계남 향약 정기총회

계남향약의 역사는 길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乙卯)에 양풍회(良風會)를 조직하였고, 그 후 1933년(癸酉) 가을 7월에 향약 발의(發議) 7인중 1원(員)인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이 서(序)와 규약(規約)을 짓고 썼는데, 서문 속에 ‘거(去) 병진추(丙辰秋)에 노소장보(老少章甫)가 약설일회(約設一會)하여 명이 양풍(名以良風)이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에 정식으로 명명했었던 게 아닌가 짐작된다. 여타 다른 전국을 돌아봐도 계남향약만한 오랜 전통을 가진 향약은 없다. 1980년(庚申)에 다시 우리말로 풀어 규약을 제

◎ 계남향약 발의인

이응구(李應奎), 서병현(徐秉鉉), 한규진(韓圭鎭), 양병선(梁炳瑄), 김희순(金熙淳), 박상석(朴尙錫), 오승호(吳升鎬)

◎ 우리말 규약 제정위원

한동석(韓東錫), 양병조(梁炳朝), 양병하(梁炳夏), 오치황(吳治滄), 박수
섬(朴洙燮)

2. 장계향약(長溪鄕約)

장계향약은 1926년(丙寅) 봄 2월 18 일(최기호(崔基皓)면장 재직시)에 군(郡)의 영지(令旨)에 따라 계내양풍회(溪內良風會)로 출발하였고, 1932년(壬申) 12월 30 일에 교풍회(矯風會)로 개칭하였다가 1935년(乙亥) 1월 20 일에 다시 향약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계북향약(溪北鄕約)

계북향약은 1939년(己卯)에 설립되었다.

4. 장수향약(長水鄕約)

장수향약은 1960년(庚子)에 조직되었다.

5. 산서향약(山西鄉約)

산서향약은 1962년(壬寅)에 성심계(省心契)로 출발하였고, 1970년(庚戌)에 향약으로 개칭하였다.

이와 같이 설립시기도 다르고 운영실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향약이 공히 향약 4대강령을 기본으로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 4대강령을 특서(特書)하면서 말을 맺는다.²⁵⁾

향약 4대강령(鄉約四大綱領)

1.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로 서로 권하는 것.
2.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을 서로 바로 잡는 것.
3. 예속상교(禮俗相交) : 예의풍속으로 서로 교제 하는 것.
4.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

25) 상세한 내용은 장수향교지 참조바람.

제 7 절 유적(遺蹟), 유물(遺物)

1. 함미성(含米城 지방기념물 제75호)

장수읍(長水邑) 대성리(大成里) 팔공산 중령에 있는 견고한 성으로 원형이 60~70% 남아있다. 장수지(長水誌)에 보면 후백제의 왕 견훤이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정확한 고증은 어렵고, 최근 학자들의 견해는 백제축성양식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백제 전성기에 신라와의 국경인 이 고장 곳곳에 동일한 성을 쌓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있다. 남원 교룡산성, 산서 사계산성, 변암 사치산성, 변암 이산산성, 장수 함미성, 계남 방어산성, 장계 명덕산성 등은 오랜 세월을 두고 국력을 기울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성의 면적은 약 1,000여평이고 둘레 400 m, 높이 7 m이며, 성안에 좋은 우물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산정(山頂)쪽 700 m 거리에 우물이 있는데

웅기통간을 매설하여 식수를 해결했다고 한다. 장수읍(長水邑) 대성리(大成里) 산177-1 번지로 장수 산서 간 도로에서 200 m정도 산위에 있어 오르기가 어렵지 않다.

2. 오동산성(梧桐山城)

장계면(長溪面) 오동리(梧桐里) 안산(案山)에 있다. 이 산성은 장계면 오동리 원오동리에서 저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성재(城臺)가 있다. 오동산성은 이 성재 위에 있는 토성(土城)을 말한다. 현재도 산정(山頂)에는 토성의 형태가 남아있다. 당시 명덕산성은 신라(新羅)땅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육십령, 마전치(馬轉峙), 민재(民時)를 넘어오는 적을 감시하기가 어려워 축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위치 등지에 전망대와 봉수대 등을 설치하였고, 이곳에 또 다른 산성(山城)을 설치한 점으로 보아 중요한 요새지라 여겨진다. 백제와 신라가 전쟁할 때 장수(長水)는 말할 수 없는 격전지였으며 사치산성, 이산산성, 방어산성(개정리), 명덕산성, 오동산성 등 5개 산성은 최전방 초소역할을 하였고, 사계산성, 합미산성, 방어산성(법화산 북쪽)등은 내성(內城)으로서 군량(軍糧), 무기(武器)등을 비장 보관하였던 곳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보아 신라(新羅)와 백제(百濟)의 중추세력이 이 고장 장수에 배치되었던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하겠다.

3. 명덕산성(明德山城)



장계면(長溪面) 명덕리 산상에 있다. 이 산성은 육십령에서 능선을 따라 북향하여 2km 저점에 있다. 지대가 높으며 성지에는 국경의 중심선을 중앙으로 봉수 및 초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해석일 듯하다.

현재에도 성지의 동편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이며, 성지의 서쪽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長溪面)이다. 특이한 점은 암석(岩石)위에 봉화로 보이는 화로가 있는데 이 화로는 당시에 불씨를 보존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봉수(烽燧)에서 봉화를 올리면 법화봉수, 주월 봉수, 진안 마이 봉수로 이어져 백제의 도읍지로 간 첫번째 봉화지로 보인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산성(山城)으로 보는 것 보다 봉수대로 보

는 편이 더 정확할 듯하다. 이 성 밑의 오동리 원오동 마을과 회곡마을 사이에는 성치산성(城峙山城)이 있는데 적군의 활동을 탐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방어산성(防禦山城)

장수읍(長水邑) 개정리 도모지골 상단에 있다. 장수읍(長水邑) 개정리 상단 최고 정상에 있는데 역시 최전방 전망대인 듯 하며 100평의 넓이에 축성하였던 석성(石城)이다. 현재도 성의 남쪽, 즉 당시의 국경능선 쪽에는 참호로 보이는 토혈(土穴)이 있으며 운봉일대와 변암 동화일대가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좋은 곳이다. 물이 없어서 양쪽 계곡에서 관수해야 했을 것이며 성(城)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는지, 봉수대로서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다 그 역할을 해냈을 것으로 보인다.

5. 사계산성(社桂山城)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棲里) 남방 산정에 있다. 성지가 꽤 넓은 곳이며 성벽 서남쪽은 원형이 보전된 부분도 있으나 동북방은 성벽을 볼 수가 없다. 성지는 서남이 높고 동북이 낮은 지형이다. 성지 내에는 습지가 있어서 언제나 상당수의 생수가 분출된다. 사계산성은 남원의 교룡산성, 합미산성 등과 같이 후방의 군사 주둔지 및 군기를 보관하는 성(城)으로 보인다. 근방의 사치산성, 이산산성, 방어산성(개정리), 명덕산성 등은 최일선 전방의 망대로 보아도 좋을 듯 하다. 또한 성지내에는 오래된 사찰도 자리하고 있다. 이 사찰은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달이 근방에서 제일 먼저 뜨고 늦게까지 비춘다하여 영월암(映月庵)이라고 하였다.

6. 이산산성(耳山山城)

변암면(蟠岩面) 유정리 성암북성 뒤에 있는 산상과 남원군 아영면 성리북방 산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군 아영면 성리에서 오르기 쉽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산성으로 보인다. 전체가 석성(石城)으로 축성되었고 성내에는 생수(生水)가 풍부하며 성의 면적도 1,000평 이상 되어 보인다. 서남에서 동북으로 약간 기울어질 듯 하며 지질도 비옥한 성지이다. 이 성은 사치산성과 참호로 연결되었던 듯하며, 대군이 주둔한 모성지(母城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규모가 큰 이성은 축성원형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우물도 있어 성의 존재

를 인정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7. 사치산성(沙峙山城)

변암면(蟠岩面) 유정리 사치마을 앞산에 있다. 변암면(蟠岩面) 유정리 남방 산상과 남원군 운봉면 동북방 산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의 특이한 점은 일반산성과 달리 3층으로 축성된 점이다. 내성(內城)은 토석(土石)을 혼합하여 축성했으며 1층과 2층 외성(外城)들은 다같이 토성(土城)으로 축성되었다. 이곳에서 고남산 여원치를 지나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격전지로 짐작되며, 장계면(長溪面) 대곡리 동남 상단에서 백운산(白雲山)과 남증치(南曾峙)를 지나 이곳까지는 산 능선이 장장 150리이며, 이 능선이 신라(新羅)와 백제(百濟)의 국경이다. 또한 현재까지 산상 능선에 참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경 방어성으로 추정된다.

8. 침령산성(砦嶺山城, 문화재자료 제176호)

침령산성 남쪽 성벽



방어산성(防禦山城)이라고도 하며, 계남면 침곡리와 천천면 춘송리 경계에 위치한다. 법화산(法華山)이 북향을 하다 머무르면서 산봉이 아담하게 서 있다. 이 산상에 고성(古城)이 있는데 지금도 성의 형태가 보전된 곳이 많으며 성안에는 6~7백평의 평지가 있어 밭을 일궈 경작도 하고 있다. 성의 정상에는 상당히 넓은 높이 있다. 방어산성은 백제와 신라 분쟁 시기에 백제의 전방기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성(城) 남쪽 2km쯤에 법화(法華)봉수 역시 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9. 봉수대(烽燧臺)

봉수대는 멀리 바라보기 좋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하였다. 봉수대에서는 밤에는 횃불[烽]을 피워서, 낮에는 연기[燧]를 올려서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였다. 봉화는 밤에 피우는 횃불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낮에 올리는 연기까지도 포함해서 흔히 '봉화'라 통칭하였다. 국가의 연락 업무 중에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는 국경의 봉수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산(山)에서 산(山)으로 연결되어 도성(都城)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조선조(朝鮮朝)의 예를 보면 서울의 남산(南山)을 종점으로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내륙은 강계(江界), 해안은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天)등 5개를 시점으로 하였다. 이상의 5개원선(原線)을 직선(直線) 혹은 직봉(直烽)이라 하였고, 직봉사이의 해안에나 산악지대에 설치 선을 간선(間線) 혹은 간봉(間烽)이라 하였다. 그리고 간봉은 직봉에 연결되었거나 인근 감영이나 병청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장수의 경우 신라와 백제의 국경분쟁 때에는 동서로 봉화선(烽火線)이 연결되었고, 고려조와 조선조에 와서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화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명덕봉수, 장안봉수, 두동봉수, 신무봉수, 법화봉수, 수월봉수는 동서로 연결된 듯한 점으로 보아서 소백산과 지리산의 국경에서 부여나 공주 백제의 도읍지로 연결된 듯하며, 고려조와 조선조에서는 남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매봉 함미산성 혹은 신무산으로 연결되어서 법화봉수, 매봉봉수로 연결되어 북으로 보낸 듯하다.

〈장수의 봉수대 위치〉

1. 장안봉수대 : 장안산(長安山) 최정상에 있는 일명 ‘쇠봉이’ 라고 하며 현재에도 불을 다뤘던 흔적이 있다.
2. 명덕봉수대 : 명덕리 할미봉에 있으며, 최정상 암벽에 산석으로 성을 쌓고 반석 위에는 두개의 봉화를 설치하였다.
3. 매봉봉수대 : 계북면(溪北面) 어전리(於田里) 뒷산에 있으며, 명덕봉수대 혹은 법화봉수대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북상시킨 봉수대로 생각된다.
4. 법화봉수대 : 계남면(溪南面) 화양리(華陽里) 뒷산과 천천 월곡리 뒷산 정상에 있으며, 장수지방 봉화망의 중심으로 남에서 북상을 하든 동에서 서로 가든 간에 이 봉수대를 거쳐 갔을 것으로 보인다.
5. 매봉봉수대 : 변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 뒷산에 있는데 함미산성이나 신무산봉수로 연결되어 북상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6. 사계봉수대 :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棲里) 앞산과 사계산성 최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남에서 북상하거나 혹은 서향하여 백제의 수도로 연결되는 간봉으로 생각된다.

10. 당(堂) 집



당(堂)집이라 함은 우리의 토속신앙(土俗信仰)의 상징적 수호신[당산(堂山)]이다. 불교(佛敎)나 유교(儒敎)나 천주교(天主敎) 등을 비롯하여 많은 종교(宗敎)

와 종파(宗派)가 있으나 이상의 종교(宗敎)나 종파(宗派)들은 사실상 외래종교(外來宗敎)이다. 산신당(山神堂)이나 성황당 등 무속신앙자체가 우리민족의 정신적 신앙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학리적 이론(學理的 理論)이 연결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지가 미약하다. 어느 면에서 사며니즘을 관련지어 토속신앙의 근원적 존재를 무시하는 형편이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불행한 곳에서 행복하게 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종교(宗敎)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마음에서 시작된 문화가 종교문화(宗敎文化)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요즘에도 사람들은 그 원함을 과학에 의지하려하지 않고 산수(山水)를 찾아 효험을 기원하고, 점(占)을 보고, 사주(四柱) 관상가(觀相家)에 의지하고 있다.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불행한 곳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의 원함을 운명적(運命的)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우리민족에게 외래종교(外來宗敎)가 없을 때는 당(堂)집을 찾고 성황당을 찾는 것이 종교였다. 또한 당집이나 성황당을 의지하고 살았던 세월은 우리민족역사 이전부터 긴 세월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당(堂)집을 말하고자한다. 본군의 당(堂)집은 천천면(天川面) 연평리(蓮坪里) 신기(薪基)마을 서북편 천반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당집은 준험한 천반산을 뒤로 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구릉위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는 느티나무가 울창하고 인가(人家)는 멀어서 계견성(鷄犬聲)도 잘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 당집은 신기리(薪基里)에 인가(人家)가 정착할 때부터 시작된다. 신기리에는 비옥한 농토가 6만여 평이나 있으나 천반산이 둘러쳐진 협곡이라 관개농업이 불가능할 것으로만 생각됐던 곳이었다. 또한

전면(前面)에 있는 금강(錦江)상류의 맑고 풍부한 물을 보고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은 천연의 암벽 때문이었다. 이에 애를 타던 한 농부가 현몽을 하였는데, 현몽에 늙은 노파 한분이 자기를 따라오라 하여 따라가니 새끼줄을 매어주면서 수로(水路)를 내라고 일러주었다.

꿈을 깬 농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먼동이 트자 꿈속에서 갔던 대로 찾아가보니 밤새 내린 백설(白雪)로 검은 땅은 백색(白色)으로 변하였고, 그 위에 사람이 걸어간 듯한 발자국이 있었다. 농부는 더욱 이상히 생각하고 자국마다 표시를 하였다. 다음해 봄 농부가 표시한 자국에 팽이질을 하였다. 석반으로 되어 팽이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곳에 팽이가 들어가는 것이었다. 농부가 파보니 수로(水路)를 만들 만한 곳만 흙으로 되어있었다. 그 이후 이 바위를 ‘팽이바위’라 이름을 짓고, 이 수로(水路)로 물을 대어 농사를 지어 크게 풍작을 맞이하였다. 추수(秋收)를 마친 농부는 이 들에서 가장 높고 정결한 곳을 찾아 제단을 만들고 현몽했던 노파에게 제를 올렸다. 이런 연유로 이 당집을 할머니당집이라고 한다. 후일에 당집을 건축하고 매년 추수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수로(水路)를 얻은 후부터 농토는 비옥하고 물은 풍부하여 매년 풍작을 이룰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이주 정착하였고, 정착한 농가에서 반드시 이 당할머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질병재화 등 모든 인간의 환난이 있으면 당집을 찾아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면 반드시 큰 효험을 거두었다고 하며, 오랜 세월 당할머니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근래부터는 미신적 신앙으로 취급 받아 점차 우리의 생활과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당집도 폐허직전에 있다.

이 당집은 잘 보존돼야 할 것이며 보존되는 것이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가치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11. 신광사 대웅전(新光寺 大雄殿 지방유형문화재 제113호)

신광사(新光寺)는 지방무형문화재 제113호로 865년(신라 景文王 5년)에 무량국사(無梁國師)가 창건하였으며, 장수군 천천면(天川面) 비룡리(飛龍里) 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무량국사는 당나라에 가서 보철선사(寶徹禪師)에게 법인(法印)을 전수받은 고승(高僧)이다. 무량국사는 당나라 어디를 가도 동방(東方)의 보살(菩薩)이라 하였다. 선사(禪師)는 845년(문성왕 7년)에 귀국하였고, 귀국 후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선사상(禪思想)을 강론하였



다. 선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한다. 선사가 본산으로 삼았던 사찰(寺刹)은 충남 보령군 성주사(聖住寺)였다. 선사는 성주사에서 법회(法會)와 강론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곳 신광사(新光寺)를 창건하였다. 성주사에 있으면서 신광사에 법회를 열고 강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신광사(新光寺)는 창건(創建)된지 733년 후인(조선조 선조 30년)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일병(日兵)의 난리로 전소(全燒)되었다. 1598년에 전소(全燒)되었던 신광사(新光寺)는 1649년(조선조 인조 27년)에 천해선사(天海禪師)에 의해서 중건되었고, 그 후 무송(茂松)스님이 주지(主持)로 있을 때(조선조 순조때) 장수현감(長水縣監) 조능하(趙能夏)의 시주로 중수되었고, 1985년에는 법은(法齔)스님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찰(寺刹)전부를 보수하였다.

이 사찰에는 대웅전(大雄殿), 명부전,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으나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대웅전이다. 대웅전(大雄殿)은 정면삼간(正面三間) 측면이간(側面二間)의 목조 맞배집이다. 맞배집이 조선조 건축양식의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인조(仁祖) 27년의 건축물이란 기록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대웅전(大雄殿)은 지붕을 이은 기와가 특이하다. 일반적인 토기과(土器瓦)가 아닌 석재기과(石材器瓦)로 그 이은 방법이 정밀하고 현묘(玄妙)하다. 이 석재와를 ‘너새’라고 하며, 돌을 정밀하게 쪼개어 만들었다. 중건(重建)이래 목재는 보수한 흔적이 보이거나 지붕의 석재(石材)기과는 그때 그 기와가 오늘의 기와인 듯하다. 이 같이 묘(妙)한 건축양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12. 원흥 석불입상(元興 寺石佛立像 문화재자료 제41호)

산서면(山西面) 마하리(馬下里) 477-1번지 원흥(元興)마을 서북편 노송이 우거진 아담한 곳에 자리 잡은 사옥(寺屋)안에 거대한 석불(石佛)이 있다. 이 석불은 통일신라때 작품이라고도 하고 고려시대의 작품이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학자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지 않았다.

석불은 관리하는 사람 없이 노천에 있었는데, 1908년에 원흥마을에 살던 화웅거사(化雄居士)가 움막을 쳐서 햇빛을 가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는 원흥사로 발전하였다. 높이가 4m이며 둘레가 3m의 거대한 석불이다. 이 석불은 화강암으로 조각되었으며, 정교한 조각법은 예술의 극치를 이룬다. 이 석불은 예전 팔공산(八公山)에 있는 팔성사(八聖寺)에 예속된 팔암자(八庵子)중의 하나의 석불(石佛)이라 생각된다.



13. 양악탑(陽岳塔 지방유형문화재 제21호)



현재의 계북면(溪北面) 양악리(陽岳里)는 백제초기의 백이현터였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곳 양악리(陽岳里)에서 물을 따라 계곡으로 오르면 토옥동(土玉洞)이다. 토옥동 입구에 계단식으로 된 논이 있는데 이 논 가운데 석탑이 있었다. 이 근방 어디엔가 심방사(尋防寺)라는 사찰(寺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근이 심방사라 추측된다. 심방사는 당시 이곳이 백제의 영현이었으니 백제 때의 사찰(寺刹)인지, 아니면 통일신라(統一新羅)후의 사찰(寺刹)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고찰(古刹)인 것만은 사실

이라 하겠다.

현재 토옥동(土玉洞)입구 용연정(龍淵亭)옆에 옮겨놓은 석탑(石塔)이 지방유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되었다. 이 탑의 조각을 보면 불교예술이 극치를 이룰때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밀하고 선미한 솜씨는 대단한 예술품이며 보호되어야 할 만하다. 탑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 불교수입 초기의 작품으로 보이며, 이는 심방사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이 지방 선비들의 시집이나 문집에 기록된 정토암(淨土庵)이란 기록을 보면 심방사도 조선조(朝鮮朝)까지 지속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한다.

14. 사리탑(舍利塔)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후산에 있다. 대단히 육중한 석탑인데 기단석에서부터 5층으로 조각되었는데 기단석은 본 위치에 있었던 산석(山石)에다 기단을 하고 기단 위는 4층으로 하였다.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의하면 백운사(白雲寺)가 팔공산(八公山)에 있었는데 신라 진평왕(新羅 眞平王)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추정해보면 4세기말이나 5세기초에 건축되었던 고찰(古刹)인듯하며, 또한 장수지 건권(乾卷)에 의하면 팔성사(八聖寺)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지(寺址)는 백운사지(白雲寺址)거나 팔성사지(八聖寺址)거나 둘 중 하나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어쨌든 유명한 스님의 사리탑(舍利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리탑의 사리는 언젠가 도굴꾼들이 탑을 쓰러뜨리고 가져갔으며, 근래에는 누군가가 계단을 없애고, 목초지를 조성하여 사지(寺址)라 가늠할 수가 없게 되어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15. 고인돌

장계 삼봉리 지석묘



장계면(長溪面) 삼봉리 들에 있다. 이 지석묘를 가리켜 고인돌이라고 한다. 장계면 일대의 지석묘는 모두 36기나 되었다. 그러나 경작지에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는데 불편을 느낀 농민들이 제거,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다. 이

지석묘는 북방식(北方式)지석묘로 학자들의 학술조사에 의하면 한강 이북에만 북방의 지석묘가 있을 뿐 한강 이남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곳에 북방식 지석묘가 있어서 큰 관심을 끈다. 이 지석묘는 북방의 기마민족이 여기까지 왔었다는 근거가 되어 사적(史的)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된다. 계남면(溪南面) 요전리(堯田里) 입구에서 최근 남방식고분이 발견되었는데, 천천면 남양리 앞들에 있던 것 보다 가장 북방식고분과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주목을 끈다. 군산대 광장근교수팀이 발굴하고 개석(蓋石)을 군산대학교로 가져가 버리고 평지를 만들었으나 본래는 능선에 있는 가야시대 장군의 묘로 추정되며 돌도끼도 나왔다.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 축협 신축공사때 50㎡지평에 지석묘가 발견되어 논개사당 잔디밭 광장 북쪽에 옮겨 놓았다. 장계면 남산리 아래 산능선에 도굴된 석관묘 수십기가 있다. 장수읍 노곡리 하리 당산 남쪽에서 돌칼, 돌도끼, 돌창등이 나왔으나 잃어버렸고, 천천면 월곡리 도로변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보존되지 못하였다.

이런 유적으로 보아 이 지방은 선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왔던 살기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다.

16. 천잠대(天蠶臺)



누에는 고래(古來)로 하늘에서 내려준 벌레라고 하여 잠(蠶)이라고 쓴다. 조선조 초기부터는 잠작(蠶作)의 풍년을 위해 천제(天祭)를 올렸는데 그 제사를 모신 제단이 장수군 천천면(天川面) 춘송리(春松里) 천변 암석에 있다. 이 제단을 천잠단(天蠶壇)이라고 하며 천잠단은 무슨 연고로 이곳에 지정했는지 고증(考證)은 없다. 그러나 이곳에 정해진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산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한 곳임에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나 그것만으로는 석연치 않다.

전설에 의하면 천상(天上)에서 지하를 내려다보니 이곳의 아름다운 산곡(山谷)에 한줄기의 맑은 물이 흐르고, 춘송(春松)도 역시 아름다운 산곡(山谷)이라 지명(地名)을 천자(天字), 천자(川字)로 하고 도리천(兜利天)의 왕자(王子)와 공주(公主)가 수년간 봄이면 천잠종(天蠶種)을 가지고 하강(下降)하여 여름에 누에를 치고 가을이면 실을 뽑아서 아름다운 비단을 짜 부모님 의복을 만들어 겨울이면 등천(登天)하였는데 그 동안에 인근의 인가(人家)에서 이 광경을 배웠고 하늘의 왕자와 공주같이 하여 부모님에게 효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비밀을 알게 된 하늘의 왕자와 공주는 영영 오질 않았다. 사람들은 이 후부터는 누에치고 실을 뽑을 줄 알았으며 다른 곳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전설이 근거가 되어 이 산에 천잠단이 정해졌으며, 이 이야기는 천천(天川)이라는 지명(地名)과도 연결이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푸른솔 사이로 한줄기 내가 있어 ‘천(川)’자를 생각하였고, 하늘에서 내려오기에 ‘천(天)’자를 생각하여 천천(天川)이라 하였으며, 또 봄에 푸른솔을 볼 수가 있어 춘송(春松)의 이름도 되었다고 전하며 천천춘송(天川春松)은 하늘에서 정해준 이름이라고 전한다.

역사적인 고증(考證)으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장수편 지물편에 나타나는데 이는 어느 때부터 천잠단이 인정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오랜 세월 속에서 민속신앙으로 천제(天祭)를 드린 사례를 관(官)에서 인정하고, 관장(官長)이 제주(祭主)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신타파의 현실 앞에 반드시 주장코자 할 문제는 물론 못되나 민속문화로의 발전(發展)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²⁶⁾

26) 조선조 성종때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에서 고증(考證)

17. 논개(論介) 말탄 바위

장계면(長溪面) 월강리(月岡里) 풍천(楓川)마을은 논개와 인연이 있는 마을이다. 당시 현감 최경회장군은 호남도원수(湖南都元帥)겸 전라(全羅)감사였던 권을(權栗)의 명에 따라 장수 수비를 책임지고 들어와 장계면(長溪面) 월강(月岡)입구, 현재 월강사 자리에 의병청을 차리고 의병을 초모하였다. 최경회(崔慶會) 장군은 의병초모와 훈련에 열중한 한편, 전라도 동북부를 넘으려는 왜적(倭賊)을 쳐 전라도를 안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월강사 창건보사의 기록에 따르면 최경회장군은 군무 중에 인근에 살고 있는 논개를 만났다고 한다. 이 인연으로 1593년(선조 25년 癸巳)4월경에 최장군이 경남우도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晋州城)을 수호하라는 나

라의 명에 따라 진주성에 입성하자, 논개는 가산을 정리하고 뒤따랐다. 그 때 논개가 여인이라 말을 탈 수가 없어 길가의 바위에 올라 말안장에 올랐다고 전한다. 그 이후부터 이 바위는 논개가 말탄 바위로 만고(萬古)에 꽃다운 이름을 얻었다. 최근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 바위도 제자리를 잃었다.

18. 서문씨굴(西門氏窟)

장계면(長溪面) 금곡리(金谷里) 26번 국도변에 있는데, 전언(傳言)에 의하면 서문씨 시조(西門氏 始祖)가 이굴에서 피난하였기 때문에 서문씨굴(西門氏窟)이라고 부른다고 하나 터무니 없는 말이고 서문수(西門璣)의 동정대(動靜臺)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이 동굴(洞窟)은 현재까지 미개발되어 내부를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말에는 굴 입구에서 불을 때면 계북면(溪北面) 산촌(山村)마을에서 연기(煙氣)가 난다고도 하나 이 역시 전설일 뿐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19. 세연대(洗硯臺)

계북면(溪北面) 매계리(梅溪里)의 매산(梅山)에 있다. 매산(梅山)의 위치는 19번국도로 장계(長溪)에서 계북(溪北)을 따라 북향하면 라치(羅峙)를 넘어 좌편으로 첫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北方을 보면 물에 적신 석산(石山)을 볼 수 있다. 이 산을 매산(梅山)이라 하고, 물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청풍(淸風)이라고 선유(先儒)들은 명명하였다. 이곳에 김순구(金順九), 김홍기(金洪基), 이규택(李圭宅)등의 제명(題名)이 있다. 매산(梅山) 청풍(淸風)의 경승(景勝)에 도취되어 세연대(洗硯臺)에서 먹을 갈아 시(詩)를 짓고 풍류(風流)하던 선인(先人)들의 여유로운 삶의 지혜에 감복할 뿐이다.

제8 절 재실(齋室)

1. 감모재(感慕齋)

수원백공(水原白公) 휘(諱) 인발(仁發)

장수읍(長水邑) 안양리(安養里)

2. 동만재(東滿齋)

평산신공(平山申公) 휘(諱) 호(鎬)

장수읍(長水邑) 두산리(斗山里)

3. 동암재(東岩齋)

전주최공(全州崔公) 휘(諱) 득립(得立)

장수읍(長水邑) 식천리(食川里)

4. 영모재(永慕齋)

형조정랑(刑曹正郎) 진주강공(晋州姜公) 휘(諱) 두후(斗厚)

장수읍(長水邑) 용계리(龍溪里)

5. 추원재(追遠齋)

전주최공(全州崔公) 휘(諱) 혼(渾)

장수읍(長水邑) 안양리(安養里)

6. 추모재(追慕齋)

밀양손공(密陽孫公) 휘(諱) 혼(渾)

장수읍(長水邑) 판둔(判屯)

7. 봉선재(鳳仙齋)

전주최공(全州崔公) 휘(諱) 승길(承吉)

장수읍(長水邑) 선창리(先昌里) 음선(陰船)

8. 영효재(永孝齋)

추계추공(秋溪秋公)

장수읍(長水邑) 판둔(判屯)

9. 영모재(永慕齋)

밀양박공(密陽朴公) 휘(諱) 자경(自慶)

장수읍(長水邑) 판둔(判屯)

10. 원모재(遠慕齋)

합천이공(陝川李公) 휘(諱) 온(蘊)

장수읍(長水邑) 대성리(大成里)

11. 영석재(永碩齋)

함양오공(咸陽吳公) 휘(諱) 석봉(石奉)

장수읍(長水邑) 식천리(食川里)

12. 영모재(永慕齋)

밀양박공(密陽朴公) 휘(諱) 강흥(姜興)

장수읍(長水邑) 식천리(食川里)

13. 신추재(愼追齋)

참봉(參奉) 경주이공(慶州李公) 휘(諱) 정룡(庭龍)

장수읍(長水邑) 용추동(龍秋洞)

14. 제양재(槎陽齋)

풍저부승(豐諸副承) 창원정공(昌原丁公) 휘(諱) 한우(旱雨)

산서면(山西面) 월곡리(月谷里)

15. 영모재(永慕齋)

유헌(游紳) 창원정공(昌原丁公) 휘(諱) 황(惶) 회산(檜山) 정공(丁公) 휘(諱) 환(煥)

산서면(山西面) 월곡리(月谷里)

16. 오운재(梧雲齋)

호조참의(戶曹參議) 창원정공(昌原丁公) 휘(諱) 지동(之洞)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樓里)

17. 추원각(追遠閣)

증(贈) 이조참의(吏曹參議) 안동권공(安東權公) 칠봉(七峯) 휘(諱) 연(演)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18. 유로재(濡露齋)

선교랑(宣敎郎)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달중(達中)
산서면(山西面) 신태리(新德里)

19. 영서재(永瑞齋)

감역(監役) 야륵헌(野聶軒)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대수(大受)의 배(配)
한양한씨(漢陽韓氏)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20. 성경재(誠敬齋)

선교랑(宣敎郎)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의(儀)의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21. 송덕재(崇德齋)

징사(徵士) 안동권공(安東權公) 운남(雲南) 휘(諱) 흠경(翕經)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22. 운양각(雲陽閣)

처사(處士)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세증(世拯)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23. 경모재(敬慕齋)

처사(處士)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양언(良彦)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24. 영산재(靈山齋)

수(壽) 이조판서(吏曹判書) 전주이공(全州李公) 휘(諱) 정규(挺奎)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

25. 상산재(商山齋)

판서(判書) 이공(李公) 휘(諱) 정규(挺奎)의 배(配) 상산이씨(商山李氏)
산서면(山西面) 신덕리(新德里)

26. 면앙재(勉仰齋)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 남원양공(南原梁公) 휘(諱) 달교(達敎)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

27. 구량재(具梁齋)

목사(牧使) 능성구공(綾城具公) 휘(諱) 달충(達忠), 가선(嘉善) 남원양공(南
原梁公) 휘(諱) 준남(俊男)의 배(配) 구씨(具氏) 남매(男妹)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28. 영모재(永慕齋)

정민공(貞愍公) 여산송공(礪山宋公) 현수(玼壽)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29. 영모재(永慕齋)

승사랑(承仕郎) 남양홍공(南陽洪公) 휘(諱) 림(臨)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30. 대산재(大山齋)

생원(生員) 광주안공(廣州安公) 휘(諱) 승효(承孝)
산서면(山西面) 사계리(社桂里)

31. 취정재(聚精齋)

군자감정(軍資監正) 광주안공(廣州安公) 휘(諱) 천룡(天龍)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32. 애경재(蒙敬齋)

광주안공(廣州安公) 휘(諱) 화원(和遠)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33. 연동재(淵洞齋)

병조판서(兵曹判書) 옥천육공(沃川陸公) 휘(諱) 지성(地成)
산서면(山西面) 학선리(鶴仙里) 동고(東阜)

34. 저존재(著存齋)

공조참의(工曹參議) 옥천육공(沃川陸公) 휘(諱) 경성(慶晟)
산서면(山西面) 마하리(馬下里)

35. 계월재(桂月齋)

김해김공(金海金公) 휘(諱) 성시(聲始)
산서면(山西面) 사계리(社桂里)

36. 이로재(履露齋)

동몽교관(童蒙敎官) 부안김공(扶安金公) 담허재(澹虛齋) 휘(諱) 지백(之白)
산서면(山西面) 사상리(社上里)

37. 추모재(追慕齋)

어모장군(禦侮將軍) 좌위대호군(左衛大護軍) 홍주이공(洪州李公) 휘(諱) 길중(吉從)
산서면(山西面) 봉서리(鳳棲里)

38. 경모재(景慕齋)

병조좌랑(兵曹佐郎) 겸(兼) 실록(實錄) 국조보감찬수관(國朝寶鑑纂修官) 전의이공(全義李公) 휘(諱) 엽(燁)
산서면(山西面) 사계리(社桂里) 반곡(盤谷)

39. 궁양재(弓陽齋)

병조좌랑(兵曹佐郎) 함양오공(咸陽吳公) 휘(諱) 세득(世得)

산서면(山西面) 학선리(鶴仙里) 궁항(弓項)

40. 영모재(永慕齋)

군자감정(軍資監正) 진주강공(晋州姜公) 휘(諱) 여주(汝周)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방죽동(方竹洞)

41. 송계재(松溪齋)

진사(進士) 활계(活溪) 경주이공(慶州李公) 휘(諱) 대주(大冑)

산서면(山西面) 사계리(社桂里) 왕곡(汪谷)

42. 매산재(梅山齋)

군자감정(軍資監正) 경주이공(慶州李公) 휘(諱) 장근(長根)

산서면(山西面) 쌍계리(雙溪里) 양촌(陽村)

43. 성경재(誠敬齋)

어모장군(禦侮將軍) 전주이공(全州李公) 휘(諱) 예(芮)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

44. 영모재(永慕齋)

한성좌윤(漢城左尹) 전주이공(全州李公) 휘(諱) 복(馥)

산서면(山西面) 사상리(社上里) 당동(唐洞)

45. 영사재(永思齋)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전주이공(全州李公) 휘(諱) 문서(文緒)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가치(柯峙)

46. 세일재(歲一齋)

진사(進士) 강릉유공(江陵劉公) 락재(樂齋) 휘(諱) 석규(錫圭)

산서면(山西面) 마하리(馬下里) 도평(道平)

47. 정송재(精松齋)

처사(處士) 구례장공(求禮張公) 휘(諱) 상현(尙賢)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강정(江亭)

48. 영모재(永慕齋)

통훈대부(通訓大夫) 함평 모공(咸平牟公) 휘(諱) 중례(中禮)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진전(眞田)

49. 율수재(律修齋)

좌승지(左承旨) 청주한공(淸州韓公) 휘(諱) 택교(澤敎)
산서면(山西面) 사계리(社桂里) 반곡(盤谷)

50. 영사재(永思齋)

좌승지(左承旨) 청주한공(淸州韓公) 휘(諱) 원열(元烈)
산서면(山西面) 쌍계리(雙溪里)

51. 충모재(忠慕齋)

문화류공(文化柳公) 휘(諱) 복영(福永)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삼곡(揷谷)

52. 회봉재(回鳳齋)

직장(直長) 전주최공(全州崔公) 휘(諱) 제운(齊雲)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53. 경주김씨(慶州金氏) 재실(齋室)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54. 모선재(慕先齋)

달성서공(達城徐公) 휘(諱) 극룡(克龍)
산서면(山西面) 오성리(五聖里) 등동(燈洞)

55. 밀양박씨(密陽朴氏) 재실(齋室)

산서면(山西面) 학선리(鶴仙里) 동고(東阜)

56. 영모재(永慕齋)

흥덕장공(興德張公) 휘(諱) 진욱(鎭旭)

산서면(山西面) 건지리(乾芝里)

57. 영모재(永慕齋)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흥덕장공(興德張公) 휘(諱) 개세(蓋世)

산서면(山西面) 이룡리(二龍里) 약촌(藥村)

58. 영사재(永思齋)

통정(通政) 분성배공(盆城裴公) 휘(諱) 덕후(德後)

번암면(蟠岩面) 동화리(桐花里)

59. 영모재(永慕齋)

통정(通政) 흥성장공(興城張公) 휘(諱) 계(械)

번암면(蟠岩面) 유정리(柳亭里)

60. 숭모재(崇慕齋)

통정(通政) 흥성장공(興城張公) 휘(諱) 현중(顯中)

번암면(蟠岩面) 논곡리(論谷里)

61. 존성재(存誠齋)

부사(府使) 흥성장공(興城張公) 초은(惇隱) 휘(諱) 영(攄)

번암면(蟠岩面) 유정리(柳亭里)

62. 감모재(感慕齋)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 경주정공(慶州鄭公) 휘(諱) 원길(元吉)

번암면(蟠岩面) 사암리(紗巖里)

63. 감모재(感慕齋)

판서(判書) 옥천조공(玉川趙公) 휘(諱) 상문(尙文)
번암면(蟠岩面) 사암리(紗巖里)

64. 유강재(濡降齋)

통정(通政) 진주강공(晋州姜公) 휘(諱) 반회(班淮)
번암면(蟠岩面) 국포리(菊圃里)

65. 영모재(永慕齋)

합천이공(陝川李公) 휘(諱) 반회(班淮)
번암면(蟠岩面) 대론리(大論里)

66. 귀포재(龜浦齋)

경주정공(慶州鄭公) 휘(諱) 진덕(震德)
번암면(蟠岩面) 국포리(菊圃里)

67. 공성재(恭誠齋)

판서(判書) 흥성장공(興城張公) 휘(諱) 승세(升世)
번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

68. 송의재(崇義齋)

판서(判書) 수원백공(水原白公) 휘(諱) 장(莊)
장계면(長溪面) 금덕리(錦德里)

69. 옥산재(玉山齋)

통덕랑(通德郎) 영산김공(永山金公) 휘(諱) 언진(彦珍)
장계면(長溪面) 월강리(月岡里)

70. 관경재(觀敬齋)

선교랑(宣敎郎) 동래정공(東萊鄭公) 휘(諱) 유지(惟祉)의 배(配) 밀양손씨
(密陽孫氏)
장계면(長溪面) 금덕리(錦德里)

71. 숭모재(崇慕齋)

가선(嘉善) 경주이공(慶州李公) 휘(諱) 유추(惟樞)

장계면(長溪面) 오동리(梧桐里)

72. 오산재(梧山齋)

통례원상례(通禮院相禮) 금령김공(金寧金公) 휘(諱) 필형(弼衡)

장계면(長溪面) 오동리(梧桐里)

73. 귀후재(歸厚齋)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충주박공(忠州朴公) 휘(諱) 수기(秀基)

천천면(天川面) 월곡리(月谷里) 박곡(朴谷)

74. 갯장당(羹牆堂)

옥천육공(沃川陸公) 휘(諱) 지성(地城)

천천면(天川面) 춘송리(春松里) 장항(獐項)

75. 춘동병사(春洞丙舍)

사정(司正) 청주한공(淸州韓公) 휘(諱) 충헌(忠獻)

천천면(天川面) 춘동(春洞)

76. 신추재(愼追齋)

통정(通政) 청주한공(淸州韓公) 휘(諱) 보(寶)

천천면(天川面) 조치(鳥峙)

77. 경모재(敬慕齋)

통정(通政) 밀양박공(密陽朴公) 휘(諱) 신검(愼儉)

천천면(天川面) 연평리(蓮坪里) 부동(阜洞)

78. 영모재(永慕齋)

연안송공(延安宋公) 휘(諱) 성경(成敬)

천천면(天川面) 평지(平地)

79. 추모재(追慕齋)

부사(府使) 연안송공(延安宋公) 휘(諱) 신행(信亨)
천천면(天川面) 신전(薪田)

80. 추원재(追遠齋)

사인(舍人) 연안송공(延安宋公) 휘(諱) 수산(壽山)
계남면(溪南面) 호덕리(好德里) 갈평(葛坪)

81. 금덕재(金德齋)

이조판서(吏曹判書) 함창김공(咸昌金公) 휘(諱) 남택(南澤)
계남면(溪南面) 호덕리(好德里)

82. 덕원재(德源齋)

통정(通政) 영산김공(永山金公) 휘(諱) 준(浚)
계남면(溪南面) 호덕리(好德里) 갈평(葛坪)

83. 영모재(永慕齋)

진사(進士) 안음서문공(安陰西門公) 휘(諱) 표(標)
계남면(溪南面) 사곡(梭谷)

84. 안락재(安樂齋)

습독(習讀) 충주박공(忠州朴公) 휘(諱) 지견(枝堅)
계남면(溪南面) 화음리(華陰里) 화산(花山)

85. 저존재(箸存齋)

옥구현령(沃溝縣令) 청주한공(淸州韓公) 휘(諱) 응지(應祉)
계남면(溪南面) 침령(砧嶺)

86. 영모재(永慕齋)

사정(司正) 남원양공(南原梁公) 휘(諱) 호(浩)
계남면(溪南面) 가곡리(佳谷里) 죽전(竹田)

87. 함적당(含赤堂)

공조참의(工曹參議) 남원양공(南原梁公) 휘(諱) 절(脫)
계남면(溪南面) 화음리(華陰里) 화산(花山)

88. 추모재(追慕齋)

사마(司馬) 전주박공(全州朴公) 휘(諱) 삼운(三胤)
계남면(溪南面) 장안리(長安里)

89. 명성재(明誠齋)

주부(主簿) 보성오공(寶城吳公) 휘(諱) 세의(世義)
계남면(溪南面) 화산리(花山里)

90. 오사재(五思齋)

수문장(守門將) 문화류공(文化柳公) 휘(諱) 세지(世址)
계남면(溪南面) 신전리(薪田里) 양신(陽薪)

91. 보원재(報遠齋)

사복사정(司僕寺正) 사성(賜姓) 김해김공(金海金公) 휘(諱) 기영(基榮)
계남면(溪南面) 양신(陽薪)

92. 영모재(永慕齋)

전주최공(全州崔公) 휘(諱) 산백(山伯)
계남면(溪南面) 호덕리(好德里)

93. 모선재(慕先齋)

남원양공(南原梁公) 휘(諱) 극수(極朱)
계남면(溪南面) 가곡리(佳谷里)

94. 모선재(慕先齋)

광주이공(廣州李公) 휘(諱) 사신(師信)
계남면(溪南面) 궁양리(弓陽里)

95. 송강재(松岡齋)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창령 성공(昌寧成公)

계북면(溪北面) 백암리(白岩里)

96. 침곡재(砦谷齋)

함안조공(咸安趙公) 휘(諱) 백(伯)

계북면(溪北面) 외림리(外林里)

제9 절 가옥(家屋)

1. 장재영가옥(張在英家屋 도민속자료 제21호)



도민속자료 21호인 이 가옥은 변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에 있으며 1856년(조선조 철종 7년)에 건축되었다. 집은 안채, 사랑채, 곳간채, 대문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는 8작지붕 4칸 민도리로 한와 오랑집이다. 사랑채는 맛배집 한와 오랑 5칸으로 건축되었고, 대문채는 한와 집이며, 중방은 시멘트 몰탈로 돌을 혼합하였다. 이 대문채를 제외하고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형태로 보아 당시의 귀족 가옥이며 노단리(魯壇里)란 지명(地名)이 성인(聖人)을 낳은 노나라 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노(魯)’자와 ‘단(壇)’자를 썼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집에 만인(萬人) 적선자(積善者)가 있었는데 삼남(三南)지역은 물론 한강(漢江)이남도 알았다는 사실이다.

2. 권희문가옥(權熙文家屋 도민속자료 제22호)

도민속자료 22호인 이 집은 산서면(山西面) 오산리(五山里) 177번지에 있는 권희문(權熙文) 가옥(家屋)이다. 사랑채인 의왕서(凝汪棲)는 서기



1773년(영조49년)에 건축된 4칸 팔작집으로 그 후 서기 1875년에 중수되었다. 동쪽 2칸은 온돌이고 서쪽 2칸은 마루인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거처하게 된 것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방과 마루 사이의 문을 열면 4칸이 모두 통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의 건물이다. 특히 지붕의 평면은 방구매기 지붕 혹은 바구리지붕이라 부르는 초가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형태로, 현재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양식이다. 몸채는 서기 1853년(철종 4년)에 건축된 9칸 삼량 맞배집이다. 평면은 전북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ㄱ자 형으로 우람한 두리기둥, 넓직한 간살, 높다란 지붕, 넓은 툇마루, 큼직하고 투박한 주춧돌과 댓돌이 안정되고 강건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는 상류가옥으로 건축되었으며 몸채와 사랑채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나 그 외 부속건물은 1970년 이후 농가의 기능에 맞게 개축되었다.

3. 정상윤가옥(丁相潤家屋 문화재자료 제119호)

문화재자료 119호인 이 가옥은 산서면(山西面) 사계리 서원마을에 있다. 건축연대는 비교적 오래지 않으나 가옥의 건축양식이나 규모가 일반가옥



과는 다르다. 외문(外門)채가 있어서 들어서면 우선 8작지붕 4칸의 사랑채

가 ‘정(丁)’ 자형으로 건축되었고, 마루는 1칸으로 사랑방과 용변소 등이 용이하도록 건축되었다. 또 사랑채와 연결된 중문(中門)이 있어서 중문(中門)을 들어서면 안채가 8작 지붕 3칸으로 건축되었고, 안채 뒤에는 넓은 정원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곳간채는 4칸이고, 몸채, 사랑채, 곳간채가 모두 한와로 되었는데 옛사람들의 내외(內外)의 예절에 의한 예(例)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건축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귀족생활을 이런 건축물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울담 안에는 넓은 대지에 화초 과수 등이 이상적으로 심어져 있다.

제10 절 루관(樓觀), 비(碑), 동상(銅像)

1. 문헌 속 정자

가. 연사루(戀思樓)

객사 남쪽에 있었다. 1474 년(성종5년 甲午)에 현감 김수강(金壽康)이 세웠다. 임금을 사모하고 아버이를 생각하는 뜻으로 이름 하였다. 강희맹(姜希孟)이 시를 읊어 현판 하였다.

나. 응벽정(凝碧亭)

객사 남쪽에 있었으니 아래에 연당(蓮塘)이 있었다.

1576년(선조9년 丙子)에 현감 조희안(趙希顔)이 중수하고 임진병란후 갑진(甲辰)에 현감 한형(韓訥)이 중수하고 현감 윤엄(尹儼)이 단청하였다.

다. 청심정(淸心亭)

방어령(防禦嶺)아래에 있었다. 진사 한익기(韓翼箕)가 庚子에 중수하였다.

라. 벽계당(碧溪堂)

옛날 벽계현 벽계리 1리(里)쯤 지점에 있었다. 참봉 한대운(韓大胤)이 세웠다.

마. 망화당(望華堂)

군 북쪽 도지촌(陶旨村)에 있었다. 도암(陶庵) 이경광(李綱光)이 북두(北斗)에 의지하고 중화(中華)를 바라는 뜻으로 지었다. 기영(記詠)이 있었고 장여현(張旅軒)의 차운(次韻)이 있었다.

바. 낙심정(樂心亭)

계남 구역리 서록(西麓)에 있었다. 현감 한예적(韓禮迪)이 지었다.

사. 송계정(松溪亭)

범화산 아래에 있었다. 처사 원대균(元大均)이 거처하였다. 최락당(最樂堂) 한세유(韓世維)가 중수하고 기문을 썼다.

아. 율리정(栗里亭)

백화산 아래에 있었다. 사인(士人) 송방렴(宋邦濂)이 복거(卜居)하고 팔영(八詠)을 지었다.

자. 영벽정(映碧亭)

관문(官文)앞에 있었다. 乙酉에 현감 상동규(尙東奎)가 이진하였고, 계묘(癸卯)에 현감 류후조(柳厚祚)가 단청(丹靑)하고 비로소 이름을 지어주었다.

차. 금난정(金蘭亭)

천천면 연화리(蓮花里)에 있었다. 연화리(蓮花里) 문장(文章) 우석규(愚錫圭), 삼봉(三峰) 박치효(朴致效), 청파(靑坡) 전영대(全永大)등 금난동지(金蘭同志)가 모여 제갈무후(諸葛武侯) 제사를 올리면서 일제하에서 의리사상(義理思想)을 고취(鼓吹)하였다. 현재는 연파정(蓮坡亭)이라 한다.²⁷⁾

27) 현재는 연파정(蓮坡亭)이라 한다.

2. 현존하는 정자

가. 자락정(自樂亭 문화재자료 제129호)



장계면(長溪面) 삼봉리 942번지 노평(蘆坪) 천변 자라형 기암(奇岩)위에 있는 자락정은 조선 성종10년(1479) 경에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선생이 창건하였다.

파은(波隱)은 충주인(忠州人)이니 1429년 9월 13일에 충청도 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사인(舍人) 김영호(金永浩)의 손녀인 함창김씨(咸昌金氏)와 혼인하여 장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처조인 사인공을 사모하였을 것이며, 강원도 관찰사에서 물러나 이곳에 정자를 짓고 자연에 파묻혀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정서율(亭序律)과 족부족시(足不足詩), 태극도설(太極圖說), 이기강설(理氣講說), 심성분설(心性分說), 신체요설(身體要說), 사군사친지론(事君事親之論), 형우제공지설(兄友弟恭之說) 등에 자락(自樂)의 뜻이 잘 나타나있다.

그 후 정자가 무너지고 주춧돌만 남았는데 순조무자(純祖戊子, 1828)년 여름 자락정유허기(自樂亭遺墟記) 순제(旬題)로 향시(鄕試)를 보였고, 1883년에 두 집 후손이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현재의 건물은 1924년에 중건(重建)한 것이다.



나. 동정대(動靜臺)

장계면(長溪面) 금곡리(金谷里) 아래에 있다. 처사(處士) 서문수(西門璣)가 여기에서 수행(修行)하면서 산정수동(山靜水動)의 뜻을 취하여 이름하였다. 현감 이의성(李義聲)의 시가 있다.



다. 용연정(龍淵亭)

계북면(溪北面) 양악리(陽岳里) 와룡대(臥龍臺)에 있는 양촌(陽村) 정존성(鄭存聖)이 노닐던 곳이다. 그의 손자 기수(基洙)가 뜻을 이어 세웠고 송연재(宋淵齋)가 기문(記文)을 썼다.



라. 사물정(四勿亭)

계남면(溪南面) 율평에 있다. 우재(愚齋) 오재흡(吳在翕)이 안자사물(顏子四勿)의 뜻을 취하여 이름하였고, 그의 아들 오승호(吳升鎬)가 지금의 건물을 세웠다.

마. 매송정(梅松亭)

계북면(溪北面) 매계리(梅溪里) 송대(松臺)에 있다. 오규성(吳奎成), 김진홍(金鎭泓) 외 20여인이 세웠다.

바. 용남정(龍南亭)

팔공산 아래 단평(丹坪) 용소(龍湫)위에 있다. 남계(南溪) 김상수(金商洙) 외 7인이 세웠다. 현감 권직상(權直相)과 금성(錦城) 정일택(鄭日宅)이 기문을 썼다.

사. 반계정(磻溪亭)

변암 대성산(大聖山)아래에 호(謔) 취현(翠軒) 휘안택(諱安維) 만인적덕(萬人積德) 장사유(張士維)가 세운 정자로 제도가 주밀하고 경치가 깊숙하여 시인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반계정 현판

아. 죽계정(竹溪亭)

변암 논곡(論谷) 사인(士人) 장기섭(張基燮)이 죽하계상(竹下溪上)에 세워 정자이름을 붙이고 자호(自號)를 죽계(竹溪)라 하였다.

자. 벽남정(碧南亭)

계남면(溪南面) 백화산 아래 도장동(道藏洞)에 있다. 장안산(長安山)에서 흐르는 물이 석대(石臺)를 안고 못을 이룬 곳에 위태롭게 자리하여 호남승지라 할만하다. 일제 강점기에 마음 달랠곳 없는 계양사인(溪陽士人)들의 참동계(參同契)로 출발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이어오고 있다.

차. 반계정(盤溪亭)

산서면(山西面) 월곡리(月谷里)에 있다. 반계(盤溪) 정상규(丁尙圭)가 세웠다.



카. 우우정(友于亭)

산서면(山西面) 월곡리(月谷里)에 있다. 호은(湖隱) 정익규(丁益圭)가 세웠다.



타. 영사정(永思亭)

산서면(山西面) 원흥리(元興里)에 있다. 원산(元山) 육종진(陸鍾填)이 선고(先考) 육중균(陸重均)을 길이 사모하는 뜻으로 세웠다.



파. 만취정(晩翠亭)

번암면(蟠岩面) 죽산리에 있다. 참의(參議) 주낙필(朱洛弼)의 정자인데 관리가 어려워 군청에 기부하였다.



하. 연파정(蓮坡亭)

천천면(天川面) 연화정에 있는 단양우씨(丹陽禹氏)의 교육 장소였었다.



거. 벽계정(碧溪亭)

벽계동지 100여인이 지은 정자로 영호간대로 위 시원한 곳에 우뚝 세워져있으니 장계면(長溪面) 개안들 앞 시냇물이 내려다보이는 절경이다.

너. 풍욕정(風浴亭)

계남면(溪南面) 구억리 아리랑고개 위에 있다. 벽계사우(碧溪土友)들이 짓고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이 기문을 썼다.

**더. 사성정(思省亭)**

계북면(溪北面) 장현 수석(水石)위에 있다. 계북사우(溪北土友)들의 정자로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이 기문을 썼다.

**러. 매향정(梅香亭)**

경주(慶州) 이명우(李明雨)의 부인인 함창(咸昌) 김순심(金順心)이 친정동네인 계북면(溪北面) 매계리(梅溪里)에 지어준 색다른 정자이다.

**머. 육십령루(六十嶺樓)**

산적이 많아 60명이 모여서 재를 넘었다는 육십령(六十嶺)에 군에서 높이 다락을 지어 영호간(嶺湖間)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다.

**버. 의암루(義岩樓)**

장수군청 앞 옛날 의암사 자리에 다락을 지어 의암(義岩)의 넋을 기리는 곳이다.

**서. 타루정(墮淚亭)**

천천 타루비 위 산상에 군에서 지은 정자이다. 창석(菖石) 김창동(金昌東)이 액자를 썼다.





어. 용호정(龍湖亭)

장수읍 용계리 주민이 지은 정자이다. 곳곳에 마을 모정이 많지만 장수 산서 간 큰길을 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당(顧堂) 김규태(金圭泰)에게 주련(柱聯)을 받아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저. 관수정(觀水亭)

계남 벽남제(碧南堤) 위에 있는 물을 보며 놀 수 있는 정자이다. 1960년(庚子)에 계남동지(溪南同志) 36인이 계(契)를 만들어 세우고 수시유관(隨時遊觀)하는 곳으로 낙시꾼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다.

처. 청수정(淸水亭)

계남 벽남제(碧南堤) 아래 황새봉 자락 암석(岩石)위에 있다. 2003년(癸未)에 지방유지 73인이 공익(共益), 화합(和合), 근면(勤勉), 겸양(謙讓)의 정화성(淨化性)을 표상(表象)으로 한 청여수(淸如水)를 인격수양(人格修養)과 삶의 기본자세(基本姿勢)로 하고자 뜻을 모아 세웠다.

커. 장안정(長安亭)

계남면(溪南面) 궁양리(弓陽里) 궁뜰 시내 위에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동지(同志) 28인이 교풍(矯風)의 뜻으로 계를 만들고 장안산(長安山) 이름을 따서 정자를 세웠다. 우계(愚溪) 양종호(梁鍾浩)의 기문(記文)이 있다.

터. 망향정(望鄕亭)

장계면(長溪面) 대곡리(大谷里)에 대곡호(大谷湖)가 축조되면서 주춘 70여 호 143명이 실향(失鄕)의 한(恨)을 안고 떠나게 되었다. 이들은 망향(望鄕)의 그리움으로 뜻을 모아 호수위에 정자를 짓고 수시로 찾아와 멀리 물속을 가리키면서 마을과 학교 지명유래(地名由來)를 되새기곤 한다.

3. 비(碑)



가. 축석의기 논개 생장향 수명비
(矗石義妓 論介 生長鄉 豎名碑)
장수(長水) 의암사 정내



나. 정충복비(丁忠僕碑)²⁸⁾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 203-1 번
지 장수향교 부강문전(문화재자료 제38호)



다. 타루비(墮淚碑)²⁹⁾
천천면(天川面) 장판리
(지방기념물 제83호)

28)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
(護聖忠僕 丁敬孫 豎名碑)

29) 타루 순의라비
(墮淚 殉義吏碑)



라. 고려 이부전서 보문각 대제학 백 충숙공 휘 장 신도비
(高麗 吏部典書 寶文閣 大提學 白 忠肅公 諱 莊 神道碑)

성균 재주 당성 홍직필 찬(成均祭酒 唐城 洪直弼 撰)

현감 광산 김영문 전병서(縣監 光山 金永文 篆并書)

장계면(長溪面) 금덕리(錦德里)



마. 송정대부 행 이조판서 함창김공 휘 남택 신도비
(崇政大夫 行 吏曹判書 咸昌金公 諱 南澤 神道碑)

예조판서 한산 이정재 찬(禮曹判書 韓山 李鼎在 撰)

완산 이일형 서(完山 李一珩 書)

계남면(溪南面) 호덕리(好德里)

30 의정부 사인 증 예
조판서 시 충간 유
현 정공 신도비(議
政府 舍人 贈 禮曹
判書 諡 忠簡 游軒
丁公 神道碑)



바. 정황선생 신도비(丁煌先生 神道碑)³⁰⁾

좌의정 권상하 찬(左議政 權尙夏 撰)

좌의정 민진원 전(左議政 閔鎭元 篆)

춘추관 기사관 홍봉조 서(春秋館 記事官 洪鳳祚 書)

산서면(山西面) 월곡리(月谷里)(지방유형문화재 202호)



사. 수열비(樹烈碑)

남원(南原) 양사순(梁思舜)의 처(妻)

해주오씨(海州吳氏, 純祖 壬辰年)

계남면(溪南面) 수열리(문화재자료 제 40 호)

아. 장수향교 이건 사적비(長水鄉校 移建 事蹟碑)

장수향교가 처음 선창리(先昌里) 당곡(堂谷)에 세워졌다가 터가 좁고 비습하여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한유일(韓有一)등이 상소하여 윤허(允許)를 받아 지금의 자리로 옮기니 실로 278년 뒤(肅宗 11년)의 일이다. 현감 이선연(李善淵)이 청봉(淸奉)을 덜고 한익삼(韓益三)을 감독으로 전 유림(儒林)이 한마음으로 뭉쳐 원형 그대로 옮겨 세우고, 흥해군수(興海郡守) 완산(完山) 유화(柳)의 글을 받아 향교에 사적비를 세웠다.

**자. 현감 이공선연 청간 불망비**

(縣監 李公善淵 淸簡不忘碑)

현감 이선연이 향교를 지금의 장소로 옮기면서 박봉(薄奉)을 덜어 적극 협조하고 청간(淸簡)한 정치를 펴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임(離任)한 뒤에 사모하여 세운비(碑)이다. 노하리 숲에 쓸쓸히 서서 글자도 거의 마모되었는데 차후 향교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차. 대동의병장 전공 수용 순국불망비**

(大同義兵將 全公 垂鑄 殉國不忘碑)

번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 묘전(墓前)





카. 대동의병장 전해산장군 추모비
(大同義兵將 全海山將軍 追慕碑)
번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



타. 용성 진중조사 유허비
(龍城 震鍾祖師 遺墟碑, 俗姓은 水原白氏)
번암면(蟠岩面) 죽림리(竹林里)



파. 호남의병장 문태서, 박춘실 장군비
(湖南義兵將 文泰瑞, 朴春實 將軍碑)
계북면(溪北面) 원촌(院村)



하. 삼일운동 기념비(三一運動 記念碑)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 괴정(槐亭)



거. 건재 정인승선생 유허비
(健齋 鄭寅承先生 遺墟碑)
계북면(溪北面) 양악리(陽岳里)

4. 동상(銅像) · 석상(石像)

가. 방촌선생 동상(龐村先生 銅像)

장수읍(長水邑) 장수리(長水里) 방촌공원 경내



나. 의암 논개 동상(義岩 論介 銅像)

장계면(長溪面) 주촌 논개 생가지



의암 논개 동상
구 논개생가지에 있었던 동상이며, 현재는 진주에 있다

다. 의암 논개 석상(義岩 論介 石像)

현 논개 생가지 중심 지점



라. 유동언선생 동상(柳東彦先生 銅像)

장수중학교 교정³¹⁾



31) 학교설립공로 인정

제11 절 기타 문화재

1. 장수 천주교회 수분공소(등록문화재 제189 호)



장수읍 수분리 662-1, 667-1, 666-1에 있다. 1913년에 지어진 수분리 공소를 본당으로 격상하면서 축성한 건물이다. 공소는 137㎡면적에 1동 1층의 한식 목구조에 서양의 바실리카식 평면을 결합했고, 합각부 쪽을 정면으로 하는 측면진입 방식을 적용했다. 수분리 지역민이 참여해 건축한 이 성당은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사·건축사·종교사적 가치를 지닌다.

2. 장수 호룡보루(등록문화재 제190 호)



산서면 동화리 186번지에 있다. 1949년에 건립한 것으로 17.3㎡의 건축면적에 높이가 7.8m, 하단둘레 16.5m의 1기이며, 여수반란사건이 발생한 후 이 지역에서도 혼란이 계속되자 지방의 치안방패로 세워진 것이다.

3. 장수 경찰서 관사(등록문화재 제216호)



장수읍 장수리 286번지에 있다. 1934년에 건립된 일식 관사로 130.84㎡ 면적에 1동1층 건물이다. 지금까지 장수경찰서 서장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다. 서양풍과 일본풍이 혼재되어 있어 당시 관사의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며, 원형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역사적, 향토사적 가치가 있다.

4. 미륵암 석불좌상(지방민속자료 제206호)

산서면 오산리 406-1번지에 있다. 고려시대에의 불상(면적 97㎡)으로 국가에 경사가 있으려면 석불이 환하게 변색하고, 흥한 일이 있으려면 석불에 이끼가 낀다고 한다. 석불에 공을 들이면 영험이 있다는 전설과 함께 오랜 세월을 내려오고 있으며 참배객도 끊이지 않고 있다. 30여년전 한국불교미술원장인 임석정스님은 불상의 양식이나 조각기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석불이라 감정하였으며 1980년 뜻있는 신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 법당을 건립하였다.



5. 백장선생 유적(지방민속자료 제101호)



장계면 금덕리 산42-1번지에 있다. 이 유적은 고려 말의 충신인 백장(1342~1418)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이다. 백장은 황희와 함께 장수군의 이덕(二德)중 한 분으로 포은 정몽주로부터 학문을 익혔으며, 고려 공민왕 6년(1357)에 과거에 합격하고, 높은 벼슬을 두루 역임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그는 강원도 치악산으로 은거함으로써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조선 태종이 몇 차례 관직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절하였으며, 태종 5년(1405년) 장계면 월강리로 유배되었다.

그보다 후에 장수로 유배 온 황희는 아침저녁으로 백장에게 문안을 드렸다고 한다. 백장의 위패는 월강리에 있는 월강사에 모셔져 있고, 묘소와 신도비가 호덕마을 위에 있다.



백장선생 신도비

6. 창원정씨종가(지방민속자료 제22호)



산서면 사계리 580-1 번지에 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가옥은 안채, 사랑채, 대문채, 행랑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여미터 거리에 정자가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전통한식 팔작지붕 형태이며, 사랑채와 대문채(솥을대문)는 1927년 지어졌고 대문 옆 칸에는 승마용 말을 사육하기도 하였다.

안채 앞마당에 검은 암반의 상단부가 보이는데 그 바위에는 ‘天下大地’라고 각인되어 있다고 하여 이 집터가 좋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